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질문명이 점점 발달해감으로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또 혼란에 빠질 때가 있으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정직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1월 3일 (토) 제 1705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아리우스가 무덤에서 웃고 있다...

CT, 라이프웨이/리곤니어 미니스트리 공동설문, 이단 교리 믿는 미국인들의 신앙분석 보도

미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 핵심교리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혼동하고 있어, 4세기에 이단이었던 아리우스(Arius)가 웃고 있을 것이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Americans' Theology is a Mix of Orthodox Belief and Shifting Opinions). 라이프웨이 리서치와 복음주의 단체인 리곤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 founder R. C. Sproul)는 2014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하나님, 구원', '유리'와 '성경' 등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앙을 조사했다.

라이프웨이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무작위로 선정된 성인 3,002명에게 설문한 결과, 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잘 알

려진 기독교 신앙의 '피상적인 면'만 믿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냈다. 한마디로, 정통 성경적 신학에서 어긋난 상대주의와 아리우스주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처니티투데이(CT)는 복음주의자들이 어쩌면 이단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고를, 이번 설문을 분석해준다(A Christian, What Do You Believe? Probably a Heresy About Jesus, Says Survey: Third study of the state of American theology, examining 34 beliefs, released by Ligonier Ministries and LifeWay Research).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은 기독교에서 잘 알려진 핵심 신앙이나 교리에 대하여 지극히 피상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실제로, 미국인 중 대다수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1)죄의 막중함 (2)같이 모여 드리는 교회예배의 중요성 (3)성령 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다.

좀 더 부연하자면,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69%)은 '작은 죄가 영원한 저주로 이어질 것이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58%는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예배와 관련해서도, 미국인 중 과반수 이상(58%)은 '홀로 또는 가족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었다. 단지 30%만이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단지 '강한 기운/힘'(a force)일 뿐이지 인격적 존재는 아니다'는 의견도 59%에 달해 정통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많이 이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미국인들이 정통 교리가 아닌 이단에 근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는 '상대주의'가 한 몫을 차지한다. 10명 중 6명이 "종교적 믿음을 객관적 진리가 아닌 개인의 의견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 중 32% 역시 동일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주의적 견해를 크게 세 가지



1차 니케아 공의회

로 정리하면,

△모든 인간은 선하다(52%)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아들인다(51%)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78%) 등이다.

결국 이러한 미국인들의 신앙은 역사적 기독교 신학과 배치된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죄(롬3:10), 하나님(요14:6) 그리고 예수(요1:1)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모질일 정도로, 복음주의자 중 97%는 삼위일체 교리(one true God in three persons)를 믿고 있다. 그러나 이중 3/4은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번째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는 수세기에 걸쳐 교회에 의해 거부되어 온 이단 즉 아리우스(Arius) 신학의 망령이다.

미국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혼란은 이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이신득의/칭의론을 온전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삼위일체 교리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대부분이 동시에 '성자' 예수는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며,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는 경향을 수용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공동체가 십대의 하루를 구한다!

처치리더.컴, Z세대가 직면하는 성/마약 위험성 소개와 교회공동체의 대책 제시

오늘날 십대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연구에서 청소년·청년 세대에 대한 결과가 참으로 심각하고 경각심을 일으킨다. 청소년·청년 세대에 맞닿아 있는 부모, 목회자, 청년 리더에게, 이 정보는 정말 시급하다(The Danger More Pressing than Sex and Drugs for Generation Z).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초반의 십대는 술을 늦게 처음 마셨고 그 전 세대와 비교해 성관계 비율도 훨씬 낮았다. 1991년 보고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대략 54%가 성관계를 가졌지만, 2010년대 초반에는 그 수치가 41%밖에 되지 않았다. 술 파티, 임신, 성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교육 목회자에게, 이는 고무적인 소식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는 대가가 따른다.

1990년 초반과 2000년 중반에 태어난 청소년·청년 세대, 일명 Z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운전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부모 없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집에 있으면서, 이들은 주로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이들은 공동체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SNS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SNS는 고립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잡지 애틀랜틱(The Atlantic) 논평에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자 "Generation Me and iGen"의 저자인 진 M. 트웬지(Jean M. Twenge)

는 스마트폰 중독이 십대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SNS의 동반 등장이 오랫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청년들의 손에 들려진 기기가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들은 처절히 불행해지고 있다."

진 M. 트웬지는 바로 이렇게 때문에 십대 사망의 주요 요인에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자살률이 타살율을 넘었다고 추측한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1991년 자살률이 사실상 이전보다 높았던 것을 알 필요는 있다. 그러나 조사를 보면 고립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십대들의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확실하다.

진 M. 트웬지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많은 십대일수록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은희곤 목사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무료 특별판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무료 (평생 가격변동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액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중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선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선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회 액자 / 기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 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주 청소년 수련회
HIGHER CALLING YOUTH 18
UNASHAMED Higher Calling Youth Conference 2018
12/27 (Tue) - 29 (Sat)
SAN DIEGO TOWN & COUNTRY HOTEL
회비 : \$200 (Early Bird \$180 by Nov. 27th)
등록 문의 highercallingyouth.org
주최 미주성시화운동본부 | 주관 SOON Movement (KCCC) | 대표대회장 송정명 목사
공동대회장 고승희 목사, 민경엽 목사, 박성규 목사, 이성현 목사, 정영희 목사, 진유철 목사, 한기형 목사, 한기홍 목사
실행위원장 이성우 목사 | 준비위원장 박종술 목사
준비위원 이기송 목사, 김인화 선교사, Bobby Oh, David Park, Peter Lee, Daniel Lee

영성과 관계에 뿌리박힌 목회자 돼야!

리더십저널, 고 유진 피터슨 목사와 3년전 '목회자의 소명과 사역' 에 대한 인터뷰 소개

복음주의자들에게 교황이 생긴다면 빌리 그레이엄이 적임자일 것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런데 만약 복음주의자들이 주교를, 그러니까 목회자의 목회자를 임명한다면, 유진 피터슨만큼 적합한 후보자는 없을 것이다. 목사이자 학자이며 작가인 유진 피터슨 목사가 지난달 22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리젠트신학교 교수로, 목회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양한 삶을 살아왔지

만 자신에게는 목회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글을 통해 4세대에 걸친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의 사역과 삶을 추모하며, 3년전 J. R. 브릭스 목사가 목회자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 유진 피터슨과의 인터뷰를 간추려 소개한다(The Relationally Grounded Pastor: An interview with Eugene Peterson).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그녀를 낫게 했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일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약도 끊고 아주 활력 넘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보다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결과는 금방 입증되니까요.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가솔했던 자녀가 돌아오고 하지요. 물론 실패하

-목회자들의 상태를 볼 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야심'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의 평가 기준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성경의 상상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계

목회자 야심이 가장 위험...삼위일체 이해가 중요

교인 스스로 문제 인식하도록...기도 가르치기 필수

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때 문입니다.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다른 위격과, 우리와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위격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계의 실재에 깊이 잠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잠식할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영향을 끼친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인들은 저를 기도의 사람, 대화의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도 저는 그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했고, 그렇게 두 세 번 만나다 보면, 놀랍게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안고 있어야만 나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제가 나의 관심을 끌지 못하니, 적어도 그들이 예상한 방식으로는 관심을 끌지 못하니, 오히려 대화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교인들에게 우리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이 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음에는 그들을 실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말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지금 제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흥미로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듭니다. 남들이 자신을 보고 안쓰러워하고 도와주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친 구입니다. 목회자인 우리가 교인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문제'라는 관점에서 인식하게 하면, 우리 생각 안에서 그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고쳐야 하고, 이것은 소명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문제를 넘어 그와 더 깊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경우가 있는지요?

우리 교회에 자녀 둘을 둔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계속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았는데, 결국 의사가 이렇게 말했지요.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문제가 더 깊은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나흘씩 병원에 입원하곤 했습니다. 병원에 심방을 했을 때 물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너무 놀라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더러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지요. "물론이지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네요."

저에게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담사 노릇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해야

는 경우도 많지만, 해결이 되면 그걸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기도는 내면화의 과정이고 여러 해에 걸친 일입니다. 기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CEO 모델'이라고 이름 붙이시면서 비판하신 사역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유혹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요?

그런 유혹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요. 저는 유명 인사들이 많이 모인 교회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은희곤 목사 (참사료교회)

어느 강사가 강의 도중 지갑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의아해 하면서도 모두 손을 듭니다. 그러자 강사는 그 100불을 주머니에 꽂 쥐고 구겨더니 다시 말합니다. "여기 구겨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도 모두 손을 듭니다. 강사가 구겨진 100불을 바닥에 던집니다. 뽀얗게 먼지까지 묻습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구겨지고 버려진 이 100불을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역시 모두 손을 듭니다. 그걸 본 강사는 말합니다. "제가 여기 100불짜리 지폐를 마구 구기고 바닥에 던져 더럽게 했더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0불의 가치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나'라는 존재가 인생의 역경을 겪으면서 구겨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나'라는 존재 가치는 전과 다름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론 실패할 수도, 때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이 100불의 지폐처럼 인생이 구겨지고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스스로를 자책하고, 평가 절하하고, 절망하고, 우울증에, 대인 기피 증에까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100불짜리 지폐가 구겨졌고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100불엔 100불의 가치가 그대로 남아있듯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지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내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에게는 참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내적 가치'입니다. 이 믿는 자들의 내적 가치는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내적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람이 축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갑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더 정확히 말하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보고 중 갈렙이 40세 때 한 말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종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민13:30). 그로부터 45년이 흘러 85세가 되어 갈렙이 다시 외칩니다. "내 나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이제 내가 45년이 지나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강건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들을 쫓아 내리이다"(수 14:12). 45년 전 40세 때나, 45년 후 85세 때나 갈렙의 꿈은 똑 같았습니다. 오늘 비록 45년 전과 같이 그 땅에 아낙 손이 있을지라도, 오늘 비록 45년 전과 같이 철벽 거와 견고한 성읍과 잘 훈련된 막강한 군대가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리고 45년이 지나 오늘 내 나이 85세가 되었을지라도, "그날에 말씀하신, 즉 45년 전에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45년이 지나 85세가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과 꿈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던 갈렙! 진정 변치 않는 "내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갈렙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첫 믿음, 첫 사랑, 첫 은혜, 첫 봉사, 첫 헌신, 첫 전도가 오늘까지, 45년이 지나 내 나이 85세가 되어도 변치 않아야 합니다. 그때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자, 꿈의 주인공들로 응답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이 되는 동역자는 이렇게 갈렙처럼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람들", "내적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골4:11). 우리 모두 변치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동역자, 목회자의 동역자, 성도들간의 동역자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변치 말고 한결같은 위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갈렙과 같이, 40세의 고백이 85세의 고백이 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음과 같이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축복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가을의 풍요로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꿈을 꿉습니다.

pastor.eun@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KWMO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

하나님은 당신을 황금기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제1회 선교박람회 MISSION EXPO

“선교는 기회로부터 출발합니다.”
소중한교회 선교운동(소형교회+중형교회+한인교회)

INVITATION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선교의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30개국 100명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기회를 알려드립니다. 초대합니다. 꼭! 오십시오!

■ 대회장 ■ 대회장
한기홍 목사 최찬영 선교사 김민희 목사 이재환 선교사
■ 준비위원장 ■ 공동준비위원장
김정환 선교사 박희성 목사 조현영 목사 노정애 목사 주영로 목사

일시 : 2018년 11월 5일(월) 9AM ~ 7일(수) 6PM
장소 : 은혜한인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관 : KWMO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
주최 : SON MINISTRIES / GMAN
문의 : kwmo4u@gmail.com Tel : 714-350-6957

선교박람회 목적

복미주한인교회 선교동원
소중한교회선교운동 (소형+중형+한인교회 선교운동)
황금기선교사(은퇴한분들) 발굴, 동원, 파송
선교사와 성도들의 직접 만남
선교지의 실제 필요한 인력동원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할때까지" (스가랴 8:23)

“걸어서 사도행전 속으로”

30개국, 100명의 선교사, 55개의 선교부스 탐방여행, 직접 현장선교사역 소개를 받으며 선교자유테라피를 받으며 내 인생의 "나의 사도행전 29장"을 시작합니다.

방문성도들은 선교사들의 55개 선교부스를 방문하여 선교사역기회 정보를 얻고 황금기선교사로, 전문인선교사로 지원하도록 동기부여, 선교장애를 제거하는 기회가 됩니다.

특별 축하공연
11월 5일(월) 7시 은혜한인교회 본당
"샘의 장막", "인애예술화연구소"

테라피 체험
· 찰테라피 (찰로 그리는 예수님 얼굴)
찰로 예수님 얼굴을 그리며 자신의 속에 있는 문제를 보게합니다.
· 커피점도테라피
커피점으로 "심자가 만들기"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생각합니다.
· 레고테라피
선교부스 여행중 레고로 심자가를 만들어보며 선교적 질문을 하게됩니다.

박람회 찬양 전야제 (주님의빛교회)
04일(주일) 오후 4:00 ~ 8:00

아침경건기도회 (세계기도센터)
05(월)~07(수) 오전 8:30 ~ 9:00

KWMO 창립예배 (세계기도센터)
07일(수) 오전 8:30 ~ 12:00

선교포럼 (세계기회)
05(월)~07(수) 오전 9:00 ~ 10:20

농축산 포럼 (웨딩채플)
07일(수) 오후 2:00 ~ 6:00

선교박람회 (정원)
05일(월)~06일(화) 오후 1:00 ~ 9:00

아리우스가 무덤에서 웃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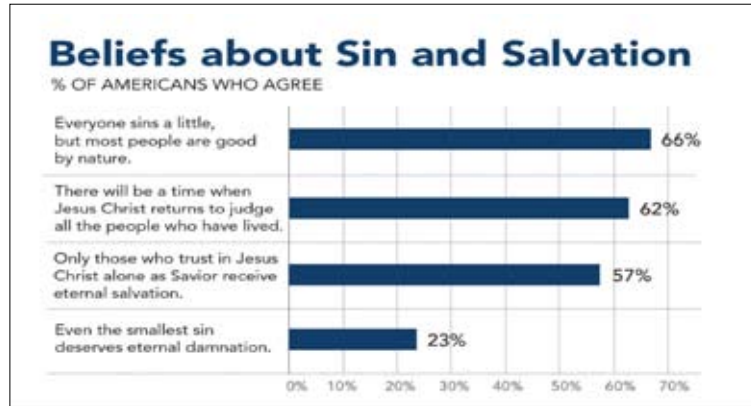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아리우스는 예수를 창조된 존재(피조물)이며, '성부'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는 성격의 주장을 펼쳐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됐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적 신앙이 2018년(78%)에는 2016년(71%)보다 약 7% 정도 성장했다.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열정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오늘날 다시 요구되고 있다"고, 이번 설문 조사를 진행한 리고너 어 미니스트리는 지적한다.

한편 윤리적 쟁점들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은 엇갈린 견해를 갖고 있다.

먼저 동성연애에 대해서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정조는 오늘 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44%는 동의하고 41%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는 낙태 시술 절차가 바로 죄라는 사실에 52%가 찬성하고 38%가 반대하고 있다.

이번 설문 결과에서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보였다. 바로 18세부터 34세 사이의 밀레니엄 세대의 신앙적 약진이 도드라지게 돋보였기 때문이다. 2016년 14% 정도였던 복음주의적 밀레니엄들이 2년 만에 4% 증가한 18%로, 이들은 "구원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다"고 2016년 53%에 비해 62%가 천명했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 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2016년 55%에 64%가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레니엄 중 53%는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는 진실이 아닌 고대 신화들로 내용이 가득하다고 믿는 수치가 2016년에 비해 2% 증가한 46%였다.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 역시 나하고는 무관하다고 믿는 수치 역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21%, 2016년 30%, 2018년 36%).

리고너 어 미니스트리는 "복음주의 진영이 성경적 교리들과 격리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준 경고"라고 전제하고, "역사적 기독교 신학 내용들이 온전하고도 충실하게 교회공동체 안에서 가르쳐져야 한다는 절대적 요구이자 사명이다"고 미국 교회에 강력하게 부탁하고 있다.

공동체가 십대의 하루를 구한다!

(1면에서 계속)
"SNS에 폭 빠져 있는 중학교 2학년은 우울증을 앓을 위험이 27%까지 올라간다. 반면에 보통 십대보다 더 많이 운동을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더 나아가 숙제를 하는 십대들은 이 비율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리고 예배의 중요성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성적 순결과 술 파티는 확실히 여전히 논의할 가치가 있지만, 십대 관련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전투를 나쁜 관계를 맺는 것에서 아예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녀가 비도덕적 선택을 할까 걱정하는 부모도 교회 지도자들이 과보호와 고립의 위험을 더뎠어 생각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7대 죄악' 중 하나인 나태를 교정하는 것이다. 나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고, 어디에도 끼여들지 않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싫어하는 것도 없고, 목적도 없고, 살려는 의지도 없지만, 죽을 이유도 없기 때문에 살아 있는 죄악'으로 묘사해 볼 수 있다.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위에 묘사해 놓은 것들, 삶이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주체적 추구하는 모습이 되기보다는 수동적인 모습인 무감각, 고립, 방탕을 일으키는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알고 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아마도 불안감, 우울증, 자살할 위험성이 높다. 십대들은 나태의 영적 블랙홀에 빠져 있다. 그러면 목회자와 부모에게는, 주님이 주는 중만한 삶으로 십대를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들이 학과 이외 활동에 참여하고, 교회 소모임에 들



어가고, 여름방학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교육 목회자는 학생들이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나태와 고립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하고, 부모님과 함께 세대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복음주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 미칠 수 있는 영적인 복잡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스

마트폰에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는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공동체가 십대의 하루를 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공동체에서 생명을 주는 복음중심 공동체까지 확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2면에서 계속)
제 이름을 기억하는 목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름 대신에) 젊은이, 오늘 자네 영혼은 어떤가?" 이렇게 묻는 목사님들에 신분이 낳지. 당시 저는 호르몬만 왕성할 뿐, 제게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였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저는 그런 나쁜 사례들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주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경쟁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주로 스포츠와 학문의 영역에서 경쟁심을 통해서 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잘해 보겠다는 야심으로부터 교인들과 관계 중심의 목회로 전환한 것은 저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

이었지요.

-경쟁심이 목사가 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드레날린과 야심이 넘쳤지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모금도 해서 비싸지는 않지만 예술적인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지었고요.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게 시작했습니다. 심방을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제가 마음에 안드는 말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6개월 만에 교인 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노회장에게 가서 물었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건축 캠페인을 또 하나 시작하세요." "말도 안돼요." "미국 사람들은 그런 동기밖에 몰라요. 목표가 있어야 해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건축 캠페인을 마쳤는데요. 이제 막 교회를 지었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말을 믿어요. 목표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와 헤어지면서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냥 내가 편안해 하는 일을 하자. 설교하고, 심방하

고, 우리 집에 초대하고.' 그게 다 좋은 일이지 한데 그것도 지치더군요. 제 자신이 마치 애완견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원반을 던지면서 '잡아와' 하면, 달려가서 잡아오는 걸 되풀이 하는 꼴이군.' "가서 잡아"는 제가 아주 잘 아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서 잡아오는 일은 아주 많이 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는 법-"앉아 있어"-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묻기 시작했지요.

채플린 임상목회 (22)

정신질환에 관한 정의와 종류(1)



박동서 목사 (Texas Health Presbyterian 병원 채플린)

아직도 일부 목회자 분들 가운데는 모든 정신 질환은 영적으로 치료할 수 있고 귀신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다소 미신적인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의 단편적인 체험이나 편향된 신학으로 균형 잡힌 안목을 상실한 채 선불리 환우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는커녕 상태만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과정에는 목회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적인 정신 질환에 관한 지식과 의학적 치료법에 관한 교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 과목들이 제공되는 신학교에서는 정신 질환에 관한 기초적 지식과 영적 접근 및 치료법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국 정신과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편찬된 자료에 근거해서 정신 질환은 과연 무엇이고, 그 종류와 증세들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질환에 관한 정의

정신 질환(Mental Illness)이란 인간의 사고와 감정 및 행위 혹은 복수의 결합된 형태로 심각한 변화를 유발하는 건강 상태를 지칭합니다. 정신 질환은 사회적, 생계관련 혹은 가족 간의 활동을 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과 그로 인한 고통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1/5(19%)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1/24(4.1%)은 매우 심각한 중증 정신 질환자들입니다. 1/12(8.5%)은 그로 인한 약물중독 질환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 질환은 치료 가능한 질환이라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정신 질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신 질환자들이 사실을 숨긴 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들은 질병에 관한 수치심이라는 유교적, 전통적 문화 때문에 자신의 병을 밝히지 않고 초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당뇨나 심장병 같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질환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 질환은 특정한 나이나 성별, 인종 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3%이 이미 24세 정도부터 첫 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잃으면 우울증세로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장기간 지속되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해지며 고통을 수반한 채 심각한 자살 충동과 같은 증증 정신 질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정신 질환의 종류

1) 불안증(Anxiety Disorders): 불안이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반작용입니다. 시험을 치르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하면 누구나 가끔은 불안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숨이 차고 어지럽기도 하는 경험을 합니다.

정상적인 불안은 쉽게 극복이 되고 불안을 유발한 사건 후까지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인구의 약 1/3이 불안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 상세한 종류로는 공황장애(Panic Disorder), 과잉충동장애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사회불안장애(Social Anxiety Disorder), 광장공포장애(Agoraphobia), 일반적 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 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

tdspark@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목회상담학 DMin in Counsel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30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재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좋은 말, 좋게 하는 습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다. 둘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는 중생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것이다. 나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써 얻어지는 새 생명. 새롭게 태어나는 생을 말한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넷째, 충만한 사람이다. 그의 진리, 그의 영, 그의 생명력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지식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다 그에게 사로잡혀 있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충만했다' 그

랬다.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을 보였다. 담대하게 말한다. 아는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는 용기가 대단하다. 비교할 수 없는 용기, 카리스마가 있는 것을 보고 고관들이 감동을 받고 이제 두려워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설명해준다.

첫째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설명이다. 지금 재판을 받는 순간인데도 큰소리친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어야 옳으냐? 하나님 앞에서 듣어야 옳으냐?" 얼마나 당당한 말인가?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그랬다. "Oh, God! here I stand." 하나님여,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다. 그래도 말한 루터는 "주여, 나 여기에 서 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의식이 중요하다. 사람 앞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것이다. 이 하나님 의식으로 가득한 사람, 이 사람은 용기가 있기 마련이다.

제가 우리교회 부교역자들을 모실 때 처음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안수 받은 목사들이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소신껏 충성하자"고 한다. 우리의 삶이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어져 간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 용기의 근원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앉은뱅이를 만난다.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병든 몸을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또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도 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걸인은 돈 좀 달라고 구걸하려고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다. 돈 달라고 손 내민 앉은뱅이를 향해 "일어나라." 그랬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앉은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표적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몸으로 느끼며 깨닫는 것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깨달음이 확신이 되니 이제 무서울 게 없다. 담력, 용기가 생겼다.

표적! 한평생을 살면서 그런 표적을 경험해보셨는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는가?

2002년에 라스베가스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신학교 때부터 교회개혁자라는 것은 생각을 안 했다, 그래서 church planting, 교회개혁에 대한 클래스는 한 시간도 안 들어갔다. 사전 지식도, 아무 준비도 없었던 절없는 목사가 대책도 없이 시작한 교회가 지금 라스베가스 한인사회 훌륭한 자도자금 성도들로 가득찬 교회로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우뚝 서있게 된 것이다. 오늘의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되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건 사람이 하는 일 아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나? 더구나 이 각박한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돌아보면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이 나의 모든 허물은 다 덮어주시고 내가 준비 없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들을 미리미리 준비시켜주셨고 그들을 세워 함께 일하게 하시고 계신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마음에 확신으로 심어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두렵지 않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용기의 뿌리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깨달음과 확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긍정적 해석을 하기 바란다. 그런 순간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전개됨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 과연 대단한 사람들이다.

Pjgang1951@gmail.com

푸/른/초/장

주원열 목사

(로드아일랜드 중앙한인교회)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32).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8:36).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요"고 말씀하셨습니다(요8:34). 바울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롬 6:6).

그러면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최초의 죄입니다. 그런데 것처럼 하라, 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갇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고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러한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해방되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정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을 말씀합니다. 죄의 육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죄의

우리는 정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함으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후에 남부의 노예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예들이 자기들의 변화된 신분을 실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옛 주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매를 맞지는 않을까, 팔려가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실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법적 신분으로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는 데도, 실제로는 여전히 노예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노예로서의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의 노예근성은 험사리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노예의 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의 삶, 곧 죄의 종 된 삶, 노예의 삶을 곧바로 청산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참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나긴 성화의 과정은 바로

영적인 전투의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는 뼈와 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과 대비하여 사용하는 육체라는 단어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NIV 성경은 sinful nature라고 번역하였는데, NEB 성경은 lower natur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존 스토틀(John Stott) 목사님은 fallen human nature, our natural tendency toward sin으로 해석합니다. 곧 우리가 갖고 태어나는 타락한 성품, 죄악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뜻과 정반대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죄성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 옛 성품은 그대로 있습니다.

시신은 약 20년 전에 사라진 그녀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hoarder였습니다. 곧 무엇이든지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방에도 거미줄과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서, 마치 트럭이 쓰레기를 그 방에 쏟아 부어 놓은 것 같은 광경이었다고 합니다.

집안에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계속 쌓아 두는 hoarding은 일종의 정신병입니다(obsessive disorder). 한국말로로는 저장강박증이라고 합니다. 한 번 만진 것에는 attachment가 생겨서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사용으로 더러워진 것이 들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건들이 쓰레기더미처럼 집안에 쌓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음식찌꺼기 같은 쓰레기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결코 그 쓰레기들을 스스로 버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청소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key word)는 성령입니다. 죄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는 열쇠는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18절은 수동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주도권(initiative)을 취하시는 인도자로 표현합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소욕과 반대되는 성령의 소욕, 곧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를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우리가 하여야 하는 일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에 수동적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6절과 25절은 능동태로 "성령을 좇아 행하라" 혹은 "성령으로 살라,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Walk in the Spirit, Live by the Spirit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겸이라고 했으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예배에 힘써 참석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일들은 서서히 사라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옛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서서히 회복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이 계속되지만,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주님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노예로부터 온전히 해방되는 과정은 서서히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더 온전한 자유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나긴 영적 전투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으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wychu2000@yahoo.com

육체와 성령

(갈라디아서 5장 16-17절)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난 자 이스마엘만 있을 때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난 자 이삭이 태어남으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갈등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 무엇인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2016년 9월 25일 뉴욕포스트(New York Post)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부르클린에 Rita Wolfensohn이라는 앞을 잘 못 보는(legally blind) 여자가 집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척(sister in law)이 옷가지들 챙기기 위해서 그녀의 집에 갔다가 2층 거실에 시신이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시신은 형바지, 양말, 셔츠를 입은 채로, 바닥 위의 얇은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는데, 온전하게 보존된 백골이었습니다. 그

찰스 스윈돌(Charles Swindoll) 목사님은 것처럼 더러운 쓰레기를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병을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장강박증 환자들(hoarders)이 어떻게 짐재만한 쓰레기더미를 치울 수 있는가?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누군가가 그 난장판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버리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럴 때 그들은 조금씩 조금씩 진보를 이루어서, 끝내는 몇 년 동안 쌓아온 쓰레기를 다 치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육체의 일들을 버리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문을 열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도록 해야 한다. 저장 강박증 환자들 손아귀에 잡고 놓지 않던 엄청난 쓰레기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처럼, 당신도 육체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아야 한다. 그것은 최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내어 놓음으로써,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청소하시도록 해드려야 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광고문의,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NY Office T: (718) 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LA Office T: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할로윈의 기원과 현대판 할로윈의 문제점!

언제부터인가, 10월이 되면 “Happy Halloween” “Celebrate Halloween”이라며 할로윈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할로윈 마켓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합니다. 할로윈은 지금 사회가 부추기듯이 축하하며 기념할만한 날일까요? 과연 우리자녀들에게 참여하도록 권장할만한 날일까요? 할로윈은 하나님이 함께 참석하신 만한 행사일까요?

어떤 유명하다는 미국의 교역자가 2017년에 “할로윈의 의미는 본래 좋은 것이어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 라는 글을 올렸는데, 진정 그럴까요?

성경에서 주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Reject every kind of evil!”(벧전5:22)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부터 할로윈의 기원과 현대판 할로윈의 실제와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 “All Saints Day and Samhain - 모든 성도의 날과 삼해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로윈(Halloween)의 기원과 변형

할로윈의 시작-“All Saints Day And Samhain - 모든 성도 및 삼해인(귀신의 날)”이란?

AD 600년경 케톨릭 교황 보니파스 4세(Boniface IV)는 5월을 All Saint’s Day로 만들어 전 세계 케톨릭들이 크리스천 영웅들을 존경하고 기억하는 의미로 경축했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연구했으며 당시에는 유럽에서 케톨릭의 압도적인 확장으로 “All Saint’s Day-모든 성도의 날”이 지배적인 휴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케톨릭교의 수장이었던 교황 그레고리 3세(Gregory III)가 유럽에 있는 이교도들의 축제를 없애고 케톨릭적인 축제로 대체하고자 “All Saint’s Day”를 5월에서 11월 1일로 옮기고 10월 31일을 “All Saint’s Day” 휴일 전야로 만들어서 전야일 이름을 “All Hallow’s Eve” 또는 “All Hallow’s Even”이라고 불렀습니다.

할로윈의 이름 변경 과정

당시에 “Hallow”는 거룩, “Even”은 저녁을 의미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름이 단축되어 “Hallowe’en”이 되고 오늘날은 “Halloween 할로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1월 1일은 무슨날이었나?-할로윈의 변질

11월 1일은 본래 Samhain이라는 유럽의 유명한 켈트 축제(Celtic festival) 날이었는데 그레고리 교황이 Samhain(삼해인) 외에 다른 이교도 축제들을 없애고자 All Saint’s Day 날짜를 5월에서 11월 1일로 바꾸면서 “All Saint’s Day”가 되었습니다.



할로윈

참고로, Samhain을 지키던 Celts(켈트)족은 2000년 전에 아일랜드, 영국, 북부 프랑스에 주로 살았던 유럽 사람들 그룹인데, 이들은 추수의 끝과 겨울의 시작을 표시하기 위해 계절의 변화가 죽은 자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다리라고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부르고 악령을 달래는 의식으로 동물들을 희생제사로 바쳤습니다. 내려오는 소문에는 동물 외에 더 끔찍한 희생들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판 “할로윈 축제”의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Samhain이라는 이교도 축제를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두가지 축제가 미묘하게 혼합되고 변질되어서 “All Saint’s Day - Samhain: 성도 및 귀신의 날”이라는 괴상한 기념일로 재탄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0월 31일이 처음에는 “All Saint’s Day”의 전야 축제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따라 Samhain축제처럼 죽은 영혼이 귀신(ghost)이 되어 돌아왔다고 믿고 악령을 위로하는, 결국은 사탄숭배자들이 하는 의식들을 답습하며 점차 문화의 일부본인 것처럼 퍼져 나가기 시작하여 지금의 “

할로윈”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할로윈이 미국에 들어온 경위와 현주소는?

할로윈은 미국에 1800년대에 들어왔는데 당시만 해도 미국에서는 이웃들과 모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정도의 친목행사로 시작되었으나, 1900년대부터는 유럽의 Samhain 이교도들이 행했던, 한마디로 사탄숭배자들이 하는 의식들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국 곳곳에서 정착될 뿐 아니라 “축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주로 하베스트 페스티벌(Harvest Festival)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들이 어떤 것이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을 대처하기위한 재미나 흥미 위주 내용보다는 어린이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행사들은 어떤가요.

1. 죽음과 생명을 진지하고 성경적으로 다루는 주제로 된 기독교 영화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준비해보세요
2.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축하하는 내용의 행사를 기획해도 좋고, 축하(Celebrate Life) 하는 연극의 밤 또는 소그룹 연극 콘테스트(contest, 내용, 의미에 집중)를 해도 의미가 있지요.
3.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배달하는 날로 만들어보세요.
4.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담긴 성경구절과 복음책자를 나눠주는 시간도 의미가 깊습니다.

비록, 세상은 사탄과 귀신을 초청하여 “죽음의 축제”를 벌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배달하는 생명의 배달자들이 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사탄과 귀신을 초청하여 “죽음의 축제”를 벌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배달하는 생명의 배달자들이 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러한 것들이 할로윈의 후유증으로 알려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서는 어지간히 큰일이 아니면 잠잠합니다.

비록 세상의 영은 할로윈을 “무고한 귀신 장난”이나 사랑을 나누는 친목 정도로 포장하지만 이러한 장난조차도 성령의 열매(갈5:19-23)와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명령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로윈날 할 수 있는 몇가지 아이디어들: Celebrate Life! Celebrate Jesus!

교회에서는 주로 하베스트 페스티벌(Harvest Festival)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들이 어떤 것이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할로윈을 대처하기위한 재미나 흥미 위주 내용보다는 어린이들에게도 아래와 같은 행사들은 어떤가요.

1. 죽음과 생명을 진지하고 성경적으로 다루는 주제로 된 기독교 영화나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화를 보고 함께 나누는 라운드테이블(Roundtable)을 준비해보세요
2.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축하하는 내용의 행사를 기획해도 좋고, 축하(Celebrate Life) 하는 연극의 밤 또는 소그룹 연극 콘테스트(contest, 내용, 의미에 집중)를 해도 의미가 있지요.
3. 사랑을 주고받는 대신, 배고픈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녀들과 함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배달하는 날로 만들어보세요.
4.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이 담긴 성경구절과 복음책자를 나눠주는 시간도 의미가 깊습니다.

비록, 세상은 사탄과 귀신을 초청하여 “죽음의 축제”를 벌일지라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할로윈에 참여하기보다, 오히려 세상속의 빛과 소금의 메시지를 배달하는 생명의 배달자들이 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종교개혁 501주년입니다. 종교개혁 전 과거의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다는데 언제 평신도들도 읽게 성경이 최초로 번역이 되었는지요?

-토론펀에서 홍 권사

A: 종교개혁의 새벽, 그 핵심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로마카톨릭 교황청이 타락했던 핵심 원인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뜻입니다. 현대는 우리 모두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500년 전만 해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16세기 초까지는 라틴어 성경(Latin Vulgate)만, 그것도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인구의 80%가 문맹이던 시절에 사람들은 성경이 있어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성도들을 상대로 사악한 성직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악용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성도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일반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게 최초로 번역된 것이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존 위클리프(John

이단 처형된 위클리프 번역 영어성경이 100년 후 영국 종교개혁에 큰 역할

Wycliff, 1320-1384)는 14세기 중반 옥스포드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가르쳤던 인물입니다.

풀러신학대학원에서 미국교회사를 전공한 한홍 목사 쓴 종교개혁 히스토리아는 책을 보면 그 당시에는 교황과 사제들은 세속적 권력과 부를 추구하느라 눈이 멀었고 부패와 향락에 빠져 신도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권은 카톨릭교회나 교황의 중재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성직자든지 평신도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위클리프는 중세 로마교회의 성례신학, 면죄부, 화체설, 연옥사상, 성인숭배들을 송두리 채 부인했습니다. 수도원제도도 비성경적인 뿐 아니라 사회적 병폐의 온상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 위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는 “모든 사람은 각자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의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성경이 훗날 최초의 영어 완역본 성경인 위클리프 성경이 됩니다. 존 위클리프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 보급하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번역한 성경을 제자들로부터 하여금 나눠서 암송하게 한 후에 영국전역으로 흩어져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놓고 암송한 성경을 들려주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대량으로 인쇄할 기술이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 방법이 최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여 곳곳에 가서 들려주던 위클리프의 제자들을 사람들은 롤라드(Lollard)라고 불렀습니다.

후에 위클리프는 교황청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도 무선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위클리프는 죽고 몇십년이 흘러간 후에 그의 적들은 그의 시신을 파내 화형에 처하고 그 재를 강에 뿌리기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은 계속 늘어갔고 그들은 100년 후에 영국 종교개혁의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윌리엄 틴데일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1525년에 틴데일 성경을 출간했고 1526년에 최초로 3000부가 인쇄되었습니다. 틴데일 성경은 약 1세기 후에 나오는 영국의 흥정역 성경(King James Version)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또한 독일의 말틴 루터가 1534년 독일어로 신구약 성경을 출간하였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어 무려 50만권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Certificate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성서신학, 기독교교육학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Science in Aviation Management 항공학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BA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Ph.D. in Leadership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가니스탄의 하자라(HAZARA)



하자라족은 험곡과 험한 산맥 그리고 파도가 사나운 강줄기로 이루어진 중앙 아프가니스탄의 광활한 대지 위에 거주하고 있다. 그들의 주요직업은 곡식을 경작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의 모든 민족들은 내전의 결과로 엄청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마을이 파괴되어서 사람들은 수도를 향해서 혹은 파키스탄이나 이란으로 망명하기 위해 집단으로 이동했다.

소련의 10년간에 걸친 점령기간 후에 (그리고 진행 중인 내전), 3천만개가 넘는 지뢰가 마구잡이로

매설돼서 하자라족의 경작지의 대부분이 현재는 황무지의 쓸모없는 땅이 되고 말았다. 전통적으로 하자라족은 천연 그대로의 겨울 거주지로부터, 하자라자트의 위쪽 경사진 곳에 있는 여름 캠프지역까지 목초지를 따라서 이동함으로써 비교적 평화로운 목가적 생존 방식을 유지한다. 기본적으로, 오직 생존에 충분할 만큼의 곡식만을 경작하고, 겨울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부 아프가니스탄이나 북부 인도에서 일자리를 찾는다.

삶의 모습

하자라족은 1년의 대부분을 30에서 100가구로 이루어진 마을에서 산다. 집의 벽은 구운 진흙벽돌로 만든다. 길고 가는 나무줄기들이 평평한 진흙으로 덮인 지붕의

바닥이 돼준다. 지붕은 가을에는 뽕나무와 포도로 덮이고 겨울 동안에는 마른과일을 먹는다.

마을사람의 3분의 1은 그들의 가족 때를 따라서 고지대로 가서 그곳에서 5월부터 9월 초까지 머문다. 사람들은 유르트라라는 동근 텐트같이 생긴 집에서 산다.

마을 사람들 간의 충돌은 전통적으로 마을 지도자들의 합의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하자라와 아프간 사이의 전쟁 아래로 이러한 자체 통치시스템은 약화되고 대부분이 정부규제에 의해 대체됐다. 정치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부혹은 사회적인 연결 관계에 기초해서 권력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주민들에 의해 임명된 대표들이다.

매우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은 "사이이드"인데 그는 이슬람교의 권위자로서 공동체의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성스러운 자질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년에서 2년에 걸친 정규교육은 남아아이들에게만 제공된다. 교육내

용은 이슬람에 관한 것이다. 시를 외우는 것이 일반적인 교육방법이다.

여가활동은 이야기하기, 레슬링 그리고 야구와 비슷한 게임을 한다.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폴로 게임과 비슷하게 기수들이 경쟁을 하면서 몇 마일 떨어진 목표 지점까지 죽은 염소의 시체를 옮기는 게임이다.

신앙

하자라족은 무슬림인데 대부분이 "12사도"라고도 하는 이마미 시야파로서 특히 예언자 모하메드의 사위 알리를 숭배하는 종파다. 타직족과 강한 연대를 이루고 있는 많은 하자라족은 "7사도"라고도 하는 이스말리 시야파다.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서로의 민족적 동질성을 부정하는 강한 감정이 형성돼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하자라족의 건강상태는 아마도 아프가니스탄의 어떤 민족보다도 열악한 상태일 것이다. 사람들은 유르트에서 청결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산에서 먼지폭풍을 만난 여행자나 연기가 자욱한 마을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병은 매우 흔하게 발병한다. 아이들은 자주 기생충 때문에 고생하고 하자라족 중 50% 이상의 사람이 결핵을 앓고 있거나 보균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시골에서는 오직 10%의 물만이 마시기에 안전한 반면 도시에서는 안전물이 30%이다. 문맹률도 높다. 적절한 교육의 기회가 소년, 소녀 모두에게 제공돼야 한다.

아직도 내전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선교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성경상 의뢰나 인도주의 사업이 주가 됨)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자라족을 위한 공식적인 선교활동은 없다. 따라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나

기독교 방송매체 또한 전무하다. 하자라족이 살고 있는 땅에 접근하는 것은 여려이라 할지라도 매우 어렵고 겨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도들끼리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스카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의 밀고자들에 의해 고발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고문을 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아프가니스탄인의 눈에 띄는 자질들 중의 하나는 그들의 강인함이다. 그들의 보편적인 반응은 전통에 기초하고 있고, 종교에 편향돼 있으며 종족마다 전쟁이나 낭만, 주술의 잔재로 얼룩져있다. 그러나 그들의 독립을 향한 열망과 투쟁은 값비싼 희생을 치러왔고 오늘날 국가는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그 빵집 정말 유죄?" 케이크 사건 대법원으로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절했다가 유죄 판결과 함께 1억 5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 주 제과점 부부가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행동이지 동성애자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레즈비언 커플의 웨딩 케이크 제작 요청을 거절했다가 유죄 판결과 함께 1억 5000여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미국 오리건 주 제과점 부부가 사건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데일리시그널 등 현지 언론들은 오리건 주 그레섬에서 '멜리사의 달콤한 케이크(Sweetcakes by Melissa)'라는 제과점을 운영했던 아내 멜리사 클라인과 남편 에런 클라인 부부가 최근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클라인 부부는 2013년 2월 레즈비언 커플인 레이첼 바우만-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크라이어의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다가 소송에 휘말렸다.

오리건 주 노동산업국(Oregon Bureau of Labor and Industries)은 2015년 7월 클라인 부부에게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며 13만 5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클라인 부부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오리건 주 항소법원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클라인 부부의 고난은 이번 만이 아니었다. 소송에 휘말린 직후 동성애자들의 강력한 항의에 부딪혀 제과점 문을 닫아야 했다. 다행히 클라인 부부의 사정이 전해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이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35만여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들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클라인 부부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클라인 부부는 레즈비언인 레이첼 크라이어와 로렐 바우만이 결혼하기 2년 전 크라이어의 모친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를 제작해준 적이 있다. 즉 주문자가 레즈비언이라도 동성결혼이 아닌 경우 케이크를 제작했으니 동성애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클라인 부부의 사건은 잭 필립스 사건과 함께 지난 몇 년간 '종교의 자유'와 '차별 금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다.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가 플로리다 주(州)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 시민권위원회의 판단이 오히려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덴버에서 '마스터피스 케이크숍(Masterpiece Cakeshop)' 제과점을 운영하는 필립스 2012년 7월 게이커플인 찰리 크레이그와 데이브 멀린스가 웨딩케이크를 주문하자 거절했다가 제소됐다.

미 사상 최악 유대인 혐오범죄

미국 사회에 누적됐던 혐오와 분노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폭발하고 있다.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인종·종교 신자를 겨냥한 '증오 범죄(hate crime)'가 연이어 발생해 미국이 충격에 빠졌다.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인사들에게 보내졌던 연쇄 폭발물 소포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유대교인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유대교 회당(시니고그)에서 27일 오전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46)가 예배 도중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

고그)에서 27일 오전 백인 남성 로버트 바우어스(46)가 예배 도중 들어가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경찰 4명을 포함해 6명이 다쳤다.

CNN방송 등 미국 언론들은 이들 사건을 '72시간의 증오(72hours of hate)'라고 표현했다. 최근 72시간 내에 발생한 3건의 강력범죄가 모두 타인에 대한 증오·분노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피츠버그 엘러게이니카운티의 '트리 오브 라이프(Tree of Life)' 유대교 회당이였다. 피츠버그 도심에서 10여분 떨어진 곳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바우어스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45분쯤 시작되는 예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AR-15 자동소총과 최소 권총 3정을 가지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바우어스가 총을 쏘면서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고 외쳤다"고 말했다. 이 유대교 회당은 평일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지만 토요일에는 유대교 안식일 예배 때문에 개방돼 있었다. 바우어스는 회당에 들어가 20여분간 머물며 범행했다. 회당 안에는 어린이 이름 명명식이 열리고 있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성인이라고 피츠버그 당국이 밝혔다. 범인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총상을 입고 체포됐다.

이번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반(反)유대인 범죄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대인을 겨냥한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에선 교회 등 특정 종교시설을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2012년 이후 15건이 발생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보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종교의식 방해와 화기 이용 살인 등 29개 혐의를 적용해 바우어스를 범행 당일 기소했다.

바우어스는 온라인에서 반(反)유대주의 내용을 여러 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바우어스는 극우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캡션의 자기 소개란에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썼다. 그는 유대인 난민지원단체(HIAS)를 '설탕을 입힌 악마'라고도 표현했다. 바우어스는 총기 난사 5분 전에도 캡션에 "우리 국민이 살육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나는 들어간다"는 글을 올렸다고 CNN은 전했다. 바우어스는 자기 이름으로 총기 21정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미 법무부는 26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반트럼프 진영의 인사들에게 최소 13개의 폭발물 장치와 든 소포를 보낸 50대 백인 남성을 체포했다. 지난 24일에는 한 백인 남성이 캔터키주의 흑인 교회를 범행 타깃으로 삼았다가 실패하자 인근 슈퍼마켓에 들어가 흑인 2명에게 총을 쏘 살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폭발물 소포 배달에 이어 흑인, 유대인들을 겨냥한 총기 난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미 정치권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증거 없이 특정한 세력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극단주의자 또는 과격주의자들에게 폭력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사악한 반(反)유대주의 공격은 인류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행사 도중 유대교 성직자(랍비) 벤저민 샌드로를 단상으로 초청해 함께 기도했다. 그는 사교 현장인 피츠버그를 곧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기관 건물에 31일까지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하게 대처한 것은 증오 범죄에 대한 책임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증오 범죄 등 정치적 폭력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중간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 전망

11월 6일 실시되는 미국 중간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중간선거 사상 최고 투표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각 주에서 시작된 사전투표가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고 23일 보도했다. 공화당·민주당·무당파 지지자들 모두에서 사전투표율이 증가했다.



미국 대선투표는 주마다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가장 빨리 사전투표가 시작된 곳은 위스콘신주로, 중간선거 47일 전인 지난 9월 20일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했다.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 우편과 직접투표의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미국 대선투표는 주마다 시기와 방법이 다르다. 가장 빨리 사전투표가 시작된 곳은 위스콘신주로, 중간선거 47일 전인 지난 9월 20일부터 사전투표가 가능했다. 사전투표는 일반적으로 우편과 직접투표의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선과 따로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투표율이 낮았으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평가다. 선거전문가인 마이클 맥도널드 플로리다대 정치학과 교수는 700만명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번 사전투표에 참여했다고 추산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1966년의 투표율 48%, 1914년의 51%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NBC방송은 22일까지 집계한 결과, 격전지 중 플로리다주의 사전투표 숫자가 91만4905표로 가장 많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지아주가 52만2886표로 2위를 차지했다.

NYT와 NBC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보다 더 많이 투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를 가지고 공화당 우세라고 예측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에는 장년·노년층이 많은데, 이들은 우편 방식을 통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표밭인 젊은층은 직접투표를 선호하며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시가지 늦게 투표장에 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맥도널드 교수는 "다음 주가 되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또 '트럼프의 원맨쇼'가 공화당의 감점인 동시에 약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구에 지원유세를 오는 데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트럼프 출입금지'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지역이다. 이곳에 출마한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 행렬(Caravan·캐러밴)을 공격하는 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전 지역과 북동부 지역,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캔자스시티 등 내륙 대도시도 트럼프 금지구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유권자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기를 과시하려고 유세지역을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펜실베이니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루 발레타 공화당 후보는 점진적인 피츠버그에서 지원유세를 해주기를 원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리(Erie)로 갔다.

"하나님의 손길이 키를 잡고 있었다"

1950년 12월 23일, 화물선으로 정원이 60명에 불과했던 메리디스비크토리는 흥남 부두에서 피란민 1만4000여명을 태운다. 한국전쟁에 동원된 민간 상선인 메리디스비크토리는 장진호 전투로 인한 흥남철수작전의 마지막 배였다. 화물선으로는 작은 배였지만 경남 거제항까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운항했다. 고(故) 레너드 라루 선장은 훗날 이같이 회고했다.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1950년 12월 23일, 화물선으로 정원이 60명에 불과했던 메리디스비크토리는 흥남 부두에서 피란민 1만4000여명을 태운다. 한국전쟁에 동원된 민간 상선인 메리디스비크토리는 장진호 전투로 인한 흥남철수작전의 마지막 배였다. 화물선으로는 작은 배였지만 경남 거제항까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운항했다. 고(故) 레너드 라루 선장은 훗날 이같이 회고했다. "한국의 검은 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라루 선장은 이후 47년을 수도사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는 왜 수도사가 됐느냐는 질문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메리디스비크토리는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한 선박으로 2004년 기념소부에 올랐다. 그 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도 타고 있었다.

미국 할리우드의 조너선 생거 감독 사단은 메리디스비크토리 이야기에 주목했다. '엘리펀트맨' '비닐라 스카이' 등을 제작한 생거 감독은 "한국전쟁 중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다"며 "전 세계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디베벌리힐스호텔에서 우리민중대표회담 송기학 이사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만남에는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 그레고리 마켓씨와 극작가 메리 텡씨가 함께했다. 재미교포인 텡씨는 올해 아메리칸픽션어워드 공상과학 부문에서 수상했다.

생거 감독은 "나의 첫 영화인 '엘리펀트맨'은 다발성 신경섬유종종이라는 희소병을 가진 남자의 실제 이야기"라며 "메리디스비크토리 이야기 역시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간 승리를 담은 실화이기에 흥미롭다"고 했다.

마켓씨는 메리디스비크토리에 대해 사전 조사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는 "영화 제작은 짧게, 사전 조사는 길게 하는 것이 할리우드의 제작 방식"이라며 "송 이사장을 통해 생존자 인터뷰와 현지답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배경으로 미국인 주인공을 그리는 영화인만큼 남·북·미의 정치적 상황이 고려될 수밖에 없다. 송 이사장은 시종일관 "남·북·미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거 감독은 "세상에는 영웅도 악당도 없다"면서 "정치는 배제한,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12월 25일이면 메리디스비크토리가 거제항에 정박한 지 70주년이 된다. 70년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민족이 해방을 위해 기다린 시간이다. 모인 참석자들은 그 전에 영화 제작을 완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남부의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만큼 시의 적절한 영화라고 판단한 것이다.

텡씨는 "미국 초등학교 교사로 20년을 근무했던 나도 메리디스비크토리 이야기는 모르고 있었다"며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순간 꼭 다음세대에 전해야 한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핵심협만 안 하면 비핵화 오래 걸려도..."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경제적으로 아주 좋은 곳이 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이라는 당근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유세에서 북핵 협상에 대해 "우리는 지금 매우 잘 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더 이상 핵은 없다. 핵실험은 중단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없는 한 (비핵화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상관하지 않는다고 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6일 중간선거 공화당 지원유세를 다니면서 북·미 협상 장기전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이번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지난 20일 네바다주 정치유세에선 북핵 문제에 대해 "잘될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치적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꼽고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성과를 요구하는 미국 내 비판론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줄 선물도 거론했다. 그는 "북한의 위치가 매우 좋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 사이에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느냐. 환상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취한다면 경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다.

한국 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62. 한시대(1888-1981)



한시대 전도사

한시대(Si Dai Hahn)는 1888년 10월 19일에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났다. 14세에 부모와 함께 하와리로 이주했다. 그는 호놀룰루 한인 중앙학원을 졸업했다. 25세 때인 1913년 7월에 한시대는 한인중앙학원 동창생인 약혼녀 박영숙과 함께 상항으로 입항하여 그해 12월에 로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다뉴바로 이주한 그는 다뉴바 한인 교회를 개척하는데 크게 공헌했다. 그는 이 교회에서 박영숙과 결혼했다. 27세에 중가주 멘티카 지역으로 이주하고 사탕무 재배를 하였다. 다시 다뉴바로 돌아와서 포도농장의 노동주선을 하였다. 1918년 12월에는 멘티카 예배당 건축에 동참한 그의 이름을 발견한다.

전도주임

1923년에 중가주 달라노에서 1천 달러에 60에이커 땅을 사 포도농사를 시작한다. 이로써 한인 노동자가 모여 들어 달라노 한인감리교회를 1929년 7월에 개척한다. 미국 남감리교 '한인 신령상 위원장'이었고 오를랜드 한인감리교회의 담임이었던 임정구 목사가 달라노를 방문하고 기도처소를 시찰하여 본 교회를 개척하였다. 예배처소는 한시대의 농장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인 8월 25일 오후 8시에 미국 남감리교 데이비스 총리를 앞세워 마추흥 전도사와 함께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리들리 한인감리교회 한석원 목사가 달라노를 방문했다. 이날 약 30명의 한인이 모인 가운데 김창각의 딸이 유아세례를 받은 후 교회를 조직하였다. 한시대가 전도 주임이 된다. 그 외 김린수가 재무 유사(재정부장)에 그리고 조울림과 김진규가 교육 위원에 선정되었다. 폐회한 후 아이스크림

파티가 있었다. 그해 9월 17일에 샘 헤이 목사가 미국 남감리교 가주 동양인선교연회를 소집했다. 이날 리들리 교회 한 목사에게 중가주

구역 목사로 선정하고 달라노 교회를 목회하도록 결정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공과는 만국 주일학교 통일 공과를 사용하고 국어학교 교과서는 조선어 독본을 쓰기로 했다. 한 목사는 토요일과 주일을 이용하여 베이크스필드와 테프트와 달라노 또는 테프트와 달라노를 잇는 중가주 순회 목회를 예정하여 1929년 10월과 11월 그리고 1930년 1월에도 계속되었다. 한 목사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일 예배 외는 전도 주임이었던 한시대의 목회였다.

전도사

1930년 3월 16일에 리들리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열린 중가주 구역의 제1계 사회에서 데이비스 목사는 어린 아기 한 명에게 유아세례식을 집례 했다. 이날 한시대는 김린수와 함께 전도사로 선임되었다. 그와 동역할 직원으로는 탁사(건물관리부장) 김순기, 재정 유사(재정부장) 이용선, 교육위원 조울림과 김진규.

한시대의 농장 (애국지사의 꿈, p. 212) 태극 국어학교 기성회장 한중상, 평신도 인도자와 연회 평신도 총대 김애나 등이었다. 한 전도사의 의미 있는 사역은 한인 2세에 대한 태극 국어학교 개교였다.

그해 5월 26일에 미국 연합감리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한국 대표로 온 협성 신학교 김인영 교수와 송고고등학교 교감 임두희 목사가 달라노 교회를 방문하였고 전도대회를 인도했다. 한 전도사가 이들을 모시기 위하여 바빴을 것이다.

그해 9월 20일에 모인 미국 남감리교 가

주동양인선교회 연환회는 리들리/달라노/테프트를 잇는 중가주 구역 목사로 김 탁 목사를 선정했다. 이듬해인 1931년 7월의 미국 남감리교 한인 지방회는 한시대를 지방 전도사로 재 파송하였고, 예배당 완성을 위하여 경비 예산을 본 선교부에 제



한시대의 농장 (애국지사의 꿈, p. 212)

출하도 명년도 예산에 편입하도록 결의하였다. 이해 9월 5일의 연환회는 달라노 교회를 나성 한인감리교회 황사용 목사의 감시 하에 둔다.

후였다. 한 전도사의 기도 후 사회자의 취지 설명, 김계훈의 독경, 김계신의 예수 탄생 독창, 방은린과 한유선의 순서, 한영숙 여사와 한세라의 병창 후에 이 목사의 축도로 1부가 끝났다.

2부는 영아부가 중심이 되었다. 한유희

레로 연설을 하였고, 한유범이 인사의 말로 마지막을 장식했다. 4부는 한유선의 사회로 여흥회가 있었다. 이용선 부부의 한국 노래를 위시하여 흥미진진한 여흥이 있고 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기에 목사가 한국으로 귀국함으로써 인해서 1932년 9월에 미국 남감리교 지방회는 구역 목사로 김 탁을 임명한다. 전도사인 한시대가 실제적인 목회를 담당했음이 틀림없다. 그의 목회는 1936년 3월까지 약 3년 6개월이 된다.

1936년 3월에 김 탁 목사가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한 전도사의 사역은 가뭇다. 김 탁 목사의 첫 사역은 예배당 건축이었다. 스타튼 한인감리교회가 폐지되면서 본 예배당 건물 값 500달러와 교인의 특별 헌금으로 신축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다. 농장을 소유했던 한시대 전도사가 크게 헌금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회 주소는 프레몬트 1301번지였다.

1937년 8월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예배당에서 태극 국어학교 하기 갑습 방학식이 있었다. 정면 후벽에 있는 태극기는 조국의 정신을 완연히 나타냈고, 좌우 벽에는 진열된 어린 학생들의 학예품은 2세 국민의 진보를 자랑하였다. 이 방학식에서 한시대 전도사는 권사 순서를 맡아 간곡하게 연설했다. 이 방학식에도 한 전도사의 자녀가 등장한다.

태극 국어학교 방학식은 사회자의 개회선포에서 시작했다. 애국가 합창, 주식의 식사 후에 수십 명의 남녀 학생들이 행렬을 지어 정면 태극기 앞에 나타나자 회중이 열광적인 박수와 기뻐하는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한유희의 피아노 반주에 어린이 입에서 '부모국야 한반도야'로 시작되는 노래에 회중이 감격했다. 김윤림은 '국치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하였는데 우리말과 우리글을 힘써 배움으로써 우리 정신을 떨쳐 국치일이 아니라 설치일로 변게 하자고 외쳤다.

서해용, 김계선, 한유창 및 오 준이 곡문자모 29자를 태극기 위에 단장하고 각각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여학생의 '나비야'의 형용 창가, 남학생의 연설, 남학생의 형용 창가, 여학생의 연설, 한유선의 '나와 남'이라는 주제의 연설, 여학생들의 권학가 합창 이후 한 전도사의 권사 순서가 있었다. 김 탁 목사는 성적 보고에 이어 9살 난 한유선이 장족의 진보를 보였다고 보고했고, 재정보고, 상품 수여, 애국가 합창으로 폐회하고 다과회가 있었다.

1938년 10월에 있었던 한인교회 지방회는 한시대와 김린수를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재임했다. 한 전도사가 은퇴하고 달라노에서 나성 인근 잉글우드로 이주하던 1948년까지 교회를 섬겼을 것으로 본다.

한시대는 한가기업회사를 운영하면서 한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었다. 그는 1981년 5월 7일에 향년 93세로 소천하여 나성 코리아타운 인근 로즈데일 공원묘지에 안장됐다. 슬하에 유선, 유범, 유반, 유창, 유철 등 5남과 유희와 유순 등 2녀를 두었다. 재미 한인 사업가로서 독립운동에 이바지했던 그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장을 수여했다.

damien.sohn@gmail.com

다뉴바 한인교회 개척에 큰 공헌, 한인감리교회 전도사로 사역 48년 잉글우드 이주까지 사역...사업가로 독립운동에도 이바지



달라노 한인감리교회 내부

이기연 목사와의 동역

1931년 9월부터 한시대 전도사는 달라노 한인감리교회의 5대 목사로 부임한, 같은 고향 출생의 이기연 목사와 동역한다. 약 1년간이다. 그해 성탄 축하식은 예년과는 달리 4부로 나누고 '각부의 사회자와 출연하는 연사와 악사는 두어 명을 제하고 다 피어오르는 꽃봉오리같이 아름다운 천진난만한 소년과 소녀였다. 이 축하식에 한 전도사의 가족이 대거 출연한다.

1부는 '정식'으로 김계신이 사회를 보는 가운데 한 전도사가 기도했다. 이기연 목사의 개회 선언과 애국가 합창이 있었던

냐의 주제로 한 연설, 한유선의 밴조 연주, 한유희의 '예수의 친구'라는 주제의 연설 그리고 이용선의 기도가 있었다. 영아들이 먼저 만주의 동포를 위하여 헌금한 후 회중 일동이 헌금하였는데 총 헌금액은 51원(달러)이었다.

3부는 한유선의 사회로 '연설과 음악'이 중심이었다. 소년 음악대의 연주, 김계선과 한유반의 '신라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 한유범과 김계준의 음악, 한유희와 한유선의 '고려의 자랑'이라는 주제의 연설, 소년 음악대의 연주가 있는 후 '동양의 자랑'이라는 주제로 한국 대표 한유희, 청국 대표 김계선, 인도 대표 한유범, 아라비아 대표 김계준, 유대 대표 한유반이 차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 (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계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리더십 코멘터리 (76)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가을리더가 준비하고 실천할 영적솔루션

천고마비 계절의 2가지 비밀

가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천고마비, 푸르고 맑은 하늘인데 천고마비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일까? 탁 트인 시야, 맑은 공기, 유난히 푸른 하늘은 가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변화 중의 하나이다. 가을 하늘은 왜 유난히 파랗게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보다 가을은 대기 중에 태양광선의 산란을 방해할 오염물질이 적은 계절이기 때문이다. 여름과 가을에는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특히 낮는데, 습도가

높은 여름엔 수증기가 태양 빛을 흡수해 산란을 방해하는 반면, 건조한 날이 많은 가을엔 공기분자가 태양 빛을 충분히 산란시켜 하늘이 더 높고 파랗게 보이는 것이다.

그럼 가을에 말이 살핀다는 말은 사실일까? 원래 가을은 말이 살핀 계절이다. 말이 살도 찌고, 마모에 윤기가 흐르면서 가을철엔 말들이 제일 상쾌해지는 계절이다. 날씨가 서늘해지면 체온 유지를 위해 몸이 열을 발산하면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고 그만큼 음식섭취의 필요성도 커진다. 천고마비 계절의 2가지 비밀을 생각하며 하늘이 맑고 푸른 가을에 높은 기상과 비전으로 가득한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의 준비

천고마비라는 한자성어의 원래 뜻은 우리의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원래는 가을이 되면 하늘이 높아져 시야가 좋고 초원에서 기르는 말들이 살이 찌서 흉노족들이 중국 지방으로 쳐들어올 가능성

이 높다는 경계의 뜻으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현대로 들어와 낭만과 풍요의 의미로 변한 것이다.

고대 은나라 때부터 중국 북방에 나타나기 시작한 흉노족은 척박한 초원에서 방목과 수렵을 하는 것이 생활 방편의 전부였던 민족이었다. 그래서 초원이 얼어붙는 시기인 겨울이 되면 보다 따뜻한 곳에서 농경생활을 하는 중국을 침입했고 중국인들이 모아놓은 곡식을 약탈했다. 그래서 흉노

리더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하며 잘 방어하고 물리쳐야 영적 서비스 통해 구성원들과 교제 나누고 이끌어 가야

의 침략을 두려워하던 중국 지방의 중국인들은 "이제 하늘이 높고 말이 살피는 계절이 되었으니 곧 흉노족이 쳐들어 올 것"이라며 흉노족에 곡식을 약탈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곤 했다. 병사들은 활줄을 튼튼히 매고 활촉과 칼을 갈고 경계를 강화했다. 흉노족이 말을 몰고 밀려올 날이 머지않았기 때문이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피는 이 계절은 고대 중국인들에게 '모든 것에 대비해야 하는 계절'이었던 것이다.

무서운 흉노족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하던 중국 지방의 병사들처럼 조직과 공동체의 책임을 맡은 리더들도 조직과 공동체를 넘어뜨리고 시험에 빠뜨리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에 늘 대비해야 한다. 흉노족은 겨울이 되면 식량이 부족해 약탈을 목적으로 중국인을 침략했지만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은 정해진 시간 없이 리더들을 공격해 실족시키려 한다. 탁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또한 악한 무리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하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고 잘 방어하며 물리쳐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리더의 싸움은 이 세상을 부패와 죄악으로 물들이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이다. 영적리더는 이 세상의 것들로 악한 무리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성경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권면한다.

흉노족을 대적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점검하고 무장하는 것처럼 영적리더도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과 확신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 가을이 깊어가는 오늘, 당신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는 리더로서 어떤 생각과 준비를 하고 있는가?

영혼을 관리하는 리더가 되라

리더에는 일반 리더와 영적 리더가 있다. 세상의 리더와 영적 리더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의 리더들은 그들의 이루어 놓은 어떤 결과물이나 가치, 성과로 평가를 받는다. 적어도 그들이 이루어 주고 있는 목표는 평가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들이 있다. 그런데 영적 리더는 그가 이루어 놓은 엄청난 성과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공과 실패는 다른 차원에서 평가받는다.

그 평가의 기준은 리더의 영혼

의 상태라는 기준이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는 가장 먼저 자기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한다. 그가 관리해야 하는 영혼은 매우 소심하고 조심성 있고, 아주 민감하다. 리더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고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열매가 없어서 하나님께 슬픈 마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 영혼이 더 기뻐할지 모른다.

이 시대에 영적리더를 결과와 성과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깊어 침투해 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도 교회성장이나 교회부흥의 지표만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를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 많은 영적리더들이 자기의 영혼을 돌볼 여유도 없이 일에 지치고 성과에만 집중해서 자기의 영혼이 고갈된 것을 모르고 항상 바쁘게 생활을 한다. 영적리더들이 항상 열심히 활력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건조하고, 생활 속에서 기쁨 없는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

영적 리더들은 영적 서비스를 통해 구성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조직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지만, 먼저 자신이 리더로서 올바르게 서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리더를 단지 서비스맨으로 부르신 것은 아니다. 영양이 부족하여 바짝 말라버린 엄마의 젓꼭지를 아이가 아무리 빨아봐도 젓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빈 젓꼭지를 빠는 아이들은 그 성격이 사나워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업들의 영혼이 궁핍하고 사나워진 성격을 가진 것은 영적 리더의 영혼이 궁핍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어가는 가을에 영적 리더들은 공동체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먼저 자기의 영혼을 풍요롭게 관리해야 한다.

가을리더가 실천할 3가지 리더십의 원리

1. 깊어가는 가을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을리더에게 주시는 3가지 메시지를 확인하라.

첫 번째 리더십의 원리: 열매를 거두는 가을리더가 되라.

열매가 없는 가을은 풍요롭지 못하고, 열매 없는 가을은 생각할 수 없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것을 가꾸는 데 아주 많은 수고와 땀과 노력이 들어간다. 그러나 가을에는 모든 노력의 결과를 얻는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땀도, 눈물도,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 아직 때

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왜 가을이 되었을지 몰랐기 때문이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가을리더가 되기를 권면한다.

두 번째 리더십의 원리: 변하는 가을리더가 되라.

가을은 단풍의 계절이다. 모든 산과 들이 노랗게, 빨갛게 물든다. 푸르던 온 산천이 울긋불긋 변한다. 변화와 리더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가지고 있는 옛 성품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변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변화 받은 사람들이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더는 변화되어야 한다. 가을 산천이 변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변해야 한다. 푸른 옷을 기꺼이 벗어던지고, 단풍의 색을 과감히 입음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식물들처럼, 시대를 이끄는 리더는 변해야 한다.

(14면으로 계속)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의교회)

가을의 소리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는 지금 어떤 계절에 와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자연의 계절에 좋고 나쁨이 없듯이 인생의 봄이 가고 우물대지 않고 겨울이 찾아왔다고 조라해지지도 않는 그저 이 계절이 주는 아름다움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까?

그렇게 찬란했던 진초록의 잎들이 하나의 낙엽으로 떨어질 때를 알고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법을 아는 나무의 지혜와 인품을 보며 이 가을의 한 복판에서 가을의 소리, 가을의 색깔, 가을의 향기, 가을의 신선함... 이 모든 가을 이야기들 속에서 그렇게 가을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모든 먼지를 말끔히 털어내고 흔까지도 세척될 것 같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멋진 날에는 좋은 사람과의 커피 한잔이 절실해진다. 좋은 사람? 그런 좋은 사람은 아마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닐까? '바보는 '바로 보는 사람' '바라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 '바나바처럼 보배로운 사람' '바닷 속에 감춰진 보물 같은 사람' 하하...

바보의 의미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그런 멋진 사람은 생수와 같이 때에 맞는 말을 하여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사람, 주님이 주연되게 조연의 역할을 잘 해주는 사람, 욕망이 깨져야 향기가 진동하듯 자아를 깨뜨려 예수 향기를 풍어내는 사람, 늘 한 발 앞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날마다 회개할 목록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늘 다가올 행복까지 미리 묵상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자신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 막히고 상한 심령들이 다가가서 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아,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셀 수도 없는 많은 것 같다.

그렇다. 좋은 사람이란 준비된 사람이다. 자기 일을 잘 하는 사람이다. 시계가 아무리 멋있어도 시간이 잘 맞지 않으면 쓸모가 없듯이, 좋은 시계는 시간이 정확하게 잘 맞는 시계여야 한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만 저절로 다가오는 것들이 많으리라. 제자들이 따라서 일거리들이 쌓이며 그런 사람에게만 어찌된 바보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지지 않을까? 마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쉬워지듯이 말이다. 그래서 주님은 내 명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으리라.

숨이 탁 막힐 정도로 할 일이 쌓여 있는 날에도 머리로 생각할 뿐 가만히 보고만 있을 때가 있다. 잠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비상을 하고 싶은 때이다. 보이지 않는 먼지가 창턱에 쌓이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속에도 마음의 먼지가 쌓여서 진심이 퇴색되지 않도록 작지만 좋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

살을 좀 더 단순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 약속을 좀 덜하고 물건을 적게 사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살기 위해 TV를 조금 덜 보고... 건강한 삶을 위해 덜 먹고 잘 먹고... 몸을 조금만 더 움직이고... 하하 좀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잠깐과 간섭을 덜 하고 절절한 삶을 위해 청소와 정리에 좀 더 시간을 쓰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며 말씀을 보고 기도시간을 조금만 더 늘리는... 이런 좋은 습관들을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건성이 아닌 진한 커피 향처럼 깊게 삶을 음미하며 정성스런 하루의 삶을 맞이하면 좋겠다.

오늘 아침엔 이런 좋은 사람들과 모닝커피 교제를 가졌다. 같이 사역하는 사모들이다. 중국에 가서 조선족 사모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한 사모님이 묻는다. '사모님은 이 사모 짓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렇다. 우린 이 사모 짓을 얼마나 해야 가야말로 '바보'의 사모가 될까? 30년이 넘게 사모 짓을 했으니 이제쯤은 그저 편안하게 어떤 문제도 다 받아 넘길 수 있는 후련한 아줌마의 모습으로 '바보'의 사모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잘 가꾸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삶을 더욱 정성스럽게 살고 더 많이 주고 가야겠구나.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나로 인해 더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바램해 보며, 이 아름다운 가을의 소리에 귀 기울여 생명의 싱그러움을 만끽한다.

changsamo1020@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12:0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45 금요일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 토 Tel: (718)26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http://kc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ccb.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 목 목 교: 오전 11:00 수 목 목 교: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45 수 목 목 교: 오후 8:00 수 목 목 교: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73-373-3411 46-04 162 St., East Meadow, NY 11558 www.nygetsemane.org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목 교: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http://www.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목 교: 오후 8:30 수 목 목 교: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8)746-7577, Fax: (718)368-1777 188-12 73 Ave., Fresh Meadows, NY 11366 www.nyanito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 목 목 교: 오후 8:30 수 목 목 교: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주비성교회 담임목사: 이규분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평일예배: 오후 5:00 목요일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ee@hotmail.com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수 목 목 교: 오후 8:00 수 목 목 교: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목 교: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사)예배: 오후 7:30 금요일(사)예배: 오후 7:30 www.pccw.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목 교: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사)예배: 오후 7:3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시...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340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 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 목 목 교: 저녁 9:00 7148로키고: 아침 7:40 수, 목, 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 목 목 교: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church.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 목 목 교: 오후 7:00 주일 3부예배: 오후 5:30(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 목 목 교: 오후 7:00 주일 3부예배: 오후 5:30(월-토)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선교 본부 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멕시코 번식 신학교 교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1, 2, 3부 예배 내외 설교) Tel: (52)33-3507-4111 E-mail: hanjkr@hanjkr.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uajara MEX(멕시코)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無意識的選擇과 確證偏向

사람은 누구나 선택하며 살아간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의 무의식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데, 이를 '무의식적 선택(無意識的選擇)'이

라고 한다. '무의식적 선택'이란 사람이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행한 선택을 가리킨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의식적 선택'이 편향

적이라는 사실이다. 무의식적 선택 편향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확증 편향'이다. '확증 편향(確證偏向)'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인문학자 김윤하 씨는 "마음의 구조"라는 짧은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 주장을 확인해 주거나 확증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나 정보에만 더 무게를 둔다. 뿐만 아니라 그런 증거들을 더 잘 알아차리고, 더 잘 찾고, 더 활발하게 찾는다"고 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자기행편과 처지에 밀접한 말씀이나 설교내용이 더 잘 기억되고 마음에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확증 편향'이라 할 수 있다.

신자들 중에는 주기적으로 자기 구미(口味)에 맞는 목사의 설교나 집회를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를 나름대로 신앙의 색깔이 분명하며, 경험이나 사역을 통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 아무리 성경을 빠르게 풀어주고 제시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물론 목사에게도 이런 경향은 있다. 책을 읽거나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면 설교에 적용할 내용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더 잘 기억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특히, '신0지'나 '여호와의 0인'에 속한 자들은 더 심각하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구질만 연결해서 진리(교리)를 설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 전제(前提)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을 프레임 효과(frame effect)라고도 한다.

오늘 우리의 삶과 사역에도 이런 편향과 자기 합리화가 만연하고 있다. 자신은 무오하며 팔을 안으로 굽히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절대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그분이 택한 것들을 구별하며 교훈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모든 약과 불의마저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된다.

이 모든 것은 초자연적 초과학적 신비로 나타나게 되며 이 모든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다.

hanmac@cmi153.org

미국에 다시 한번 대부흥을!

2018 다민족기도대회, 'Heal Our Land' 주제

2018 다민족기도대회가 'Heal Our Land'라는 주제로 10월 28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다민족대회 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다민족연합기도대회를 통해서 미국이 다시 한번 성경에서 벗어난 모든 일들을 회개하며 강력한 대부흥을 경험하며 거룩성과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함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세계선교를 마무리하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 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책 힙스 목사(갈보리체물 치노힐스)는 "미국건국의 조상들인 필그림과 같은 이야기가 역사에서 나온다"며 "부흥은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 말했다.

힙스 목사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비치고 많은 악한 것들을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라 말하며 "우리들은 빛 가운데 걸어 다니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있으며 심판의 그날 우리가 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데이빗 안드레이드(라인인터센드)는 "이집트를 비롯한 무슬림권 국가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오늘 이 집회는 전 세계에 위성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며 전 세계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 기도를



다민족연합기도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통해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구한다"고 말했다.

수개월 동안의 준비모임을 가지며 기도로 준비한 이날 기도회는 먼저 민경열 목사(나침반교회) 인도로 '회개'를 위해 기도회가 시작됐으며, 데이빗 안드레이드 목사 인도로 '부흥', 김우준 목사(토렌스조은교회) 인도로 '회복'을 놓고 기도가 이어졌다.

또한 월터 터커 목사(진리사랑크리스천교회)가 '사회정의',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선거와 지도자', 엄규서 목사(월서크리스천교회)가 '차세대와 선교'에 대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히스패닉, 아프리카 아메리칸, 백인, 일본인, 대만인, 중동인, 유대인, 베트남인 등 다양한 인종과 민족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등 13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서 미국을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었다.

하지만 해마다 지적이 돼왔던 것처럼 다민족기도대회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민족참여에서도 한

인들이 대다수를 이뤘다. 다만 작년 부터 타민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과 차세대들의 참여가 눈에 띈 것은 고무적이지만 전체적인 참여도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은 다민족 기도대회 관계자들에게 과제로 주어졌다.

다민족기도대회 준비위원장 강순영 목사(자마대표)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미국은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 질서를 유지해오고 있는 나라이기에 강력한 부흥을 통해서 세계인의 존경이 회복되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더 강한 나라로 태어나야 한다. 특별히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하나님께로 되돌리려는 경건한 지도자들이 선출돼야 하기에 부흥과 선거를 위해 비상하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선교적 교회를 위한 NGO세미나에서 임진기 사무총장이 강의하고 있다

"교회가 선교에 NGO 활용하자"

월드미션대학교 선교적 교회를 위한 NGO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NGO세미나를 10월 23일과 25일 오후 7시 본교 강당에서 개최했다.

첫날엔 임진기 사무총장(휴먼엔휴먼인터내셔널)을 초청, 'NGO와 선교' 주제로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윤정 교수(월드미션대학)의 사회로 진행된 선교세미나에서 임성진 총장이 기도를 한 후 임진기 사무총장이 강단에 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봉독하고 "교회와 성도의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적 지상명령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말하며 교회의 NGO사역 강의에 들

어갔다.

임 사무총장은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비정부기구)와 NPO(Non 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민간단체)는 모두 같은 개념을 가진 다른 명칭일 뿐이며 국가의 사회와 기업이 감당하지 못하는 제3의 영역을 감당하기 위한 자발적 의지의 모임인 독자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민교회는 NGO를 위한 3대 자원인 인적, 물질, 가치 자원이 이미 준비돼 있으며, 무엇보다도 NGO의 최대 강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향한 선교의 사역의 황금여장을 갖

고 있다"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교회는 NGO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NGO를 세상적인 것이라 외면하고 있다. 반면 타종교와 이단들은 NGO를 최대한 활용하며 다양하고 전문분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선교를 위해 NGO가 절실한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상과 사회와 소통하는 최고의 중계수단이기 때문"이라며, "교회가 이제는 단순한 구제와 나눔의 봉사처원을 넘어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제도과 법률의 개혁을 추구하는 NGO라는 새로운 전략적인 소통의 도구를 갖고 세상으로 나가 사회를 섬기며 궁극적인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활동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이민 교회 모두 NGO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임을 인식해야 하고, 교회의 NGO를 통한 선교에 대한 인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목요일에 열린 세미나는 루이스 모랄레스 목사(Vida Real Church 담임, Hearts of Life Foundation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캠코럴 제13회 정기연주회가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후원받은 무지개가족선교회 찬양팀 특송

제13회 캠코럴 정기연주회 성황리 열려

제 13회 캠코럴(단장 제니퍼김, 지휘 이수정) 정기연주회가 28일 오후 7시 뉴라이프커뮤니티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제니퍼김 단장은 "찬양이 아름다

운 건 받으시는 분이계시기 때문"이라며 "오늘 연주되는 찬양이 연주회장을 찾은 모든 분들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안창훈 목사(미션커뮤니티교회) 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이시여', '거룩하시도다', '내 영혼의 바위', '내가 주께로' 등 찬양곡과 '캘리포니아 드림',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대중음악을 불렀다.

또한 렉싱턴 중학교 합창단이 찬조 출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내주었다.

한편 이날 연주회는 무지개가족선교회(대표 이지혜 선교사)를 후원하기 위해 열렸는데 이지혜 선교사가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며 본선교회 가족들로 구성된 찬양팀이 특송을 부르는 시간이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축복하노라'를 앵콜곡으로 부른 뒤 박상목 목사(가주주님의교회)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사우스베이 한일 하모니콘서트에서 유해자 국악무용연구소 팀(사진 좌측)과 다미에 오르고 씨(사진 우측)가 공연하고 있다

문화예술 통해 이해 도모

사우스베이 한일 하모니콘서트 성료

사우스베이 한일 하모니콘서트가 10월 27일 오후 2시 성령의열매 루터릭커뮤니티교회(담임 김흥선 목사)에서 열렸다.

김흥선 목사는 "제가 이곳에 부임한 1주년의 작년 행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고 올해는 양국의 전통음악과 무용 등의 문화예술을 통해 서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흥선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된 한일 하모니콘서트는 기쿠마 시계

루 일본영사가 축하했으며 김완중 LA총영사의 축사가 소개됐다.

이어 다카미 요리코 씨가 일본무용을 선보였으며 유해자 국악무용연구소 팀이 한국 국악과 무용을 선보이는 등 양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참석자들이 다과를 즐기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기쿠마 시계루 일본영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과 일본의 문화와 풍습의 차이는 서로의 시야를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 하모니콘서트를 통해 그리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건설적인 한일커뮤니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사경회에서 찬양대가 특별찬양하고 있다.

'신앙의 한 수' ...강사 신동우 목사 살롯장로교회 가을부흥사경회

수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시대의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신 동우는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쏟아 부었으며 오지 선교의 과감한 경험을 전했다. 특히 끝날 주일오후 시간에는 전유니버시티합창단이 세련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참석자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또 이제 믿기로 발돋움하는 다민족 학생들 특히 중국학생들을 위해

다. 신 동우는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를 쏟아 부었으며 오지 선교의 과감한 경험을 전했다.

특히 끝날 주일오후 시간에는 전유니버시티합창단이 세련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참석자 모두의 심금을 울려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또 이제 믿기로 발돋움하는 다민족 학생들 특히 중국학생들을 위해

통역을 해 세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담임 나성균 목사는 "그 여는 때보다도 준비에 열정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던 부흥사경회였다"며 "금식기도 등 기도로 준비하고 포스터를 각 한인 마켓과 이웃 한인교회에 부착했으며 모든 한인 가정 순서지를 발송하는 일 등 할 수 있

었던 일을 최선으로 감당했다"고 말했다.

나 목사는 또 "부흥회 기간동안 이웃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협력해 다시 옛날의 풋풋한 영적 친교를 되살리는 축복을 누렸으며 마지막 잔치는 가장 큰 잔치로서 영육간 손색이 없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가정폭력 예방위한 여성지역자 수련회

한인가정상담소 개최, LA-OC서 15명 참석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정조)는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한인 여성지역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1박2일 교육 수련회를 개최했다.

10월 가정폭력 인식의 달을 맞아 열린 이번 교육에는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기

독교 지역자 15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정폭력의 정의와 종류, 성폭력과데이트폭력 등에 대해 배우고, 한인사회 가정폭력 실태에 공감하며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토론했다.

(11면으로 계속)

동부교계 기사판



2019년 뉴욕교협 주소록 수정 마감

뉴욕한인교회협의회 2019년 교회주소록이 발간을 앞두고 주소록에 기재될 내용 확인 및 수정을 받고 있다. 마감은 11월 7일(수)이며 교협 이메일(nyckcg@gmail.com)로 보내면 된다. 주소록 게재 내용은 △교회 이름 담임 △목회자 이름 △부교역자 이름 △장로 이름 △교회 주소 △사택 주소 △교회 전화, 팩스 △사택전화, 셀폰 △교회 홈페이지, e-Mail △교단이름.

▲문의: (718)279-1414

베이스 연주자 청빙

리빙스톤교회(담임 유상열 목사)가 가스펠 재즈(Gospel Jazz)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 찬양사역에 경험 있는 베이스 연주자 찾고 있다. 교회주소는 215- 29 42 Ave. Bayside, NY 11361.

▲문의: (917)862-0523

'지성소 예배' 한국 집회

라이프라인미션 대표 유태웅 목사가 11월 한달 동안 한국에서 '하나님과 일대일 만남, 지성소 예배' 집회를 갖는다. 11월 2일 장수남양반석교회(담임 장인득 목사)를 시작으로 18일 서울개봉제일교회(담임 김낙원 목사)까지 집회하며 방송도 하게 된다.

▲문의: (646)258-4161

새가나안교회 설립 35주년 감사 음악회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홍 목사) 설립 35주년 감사 음악회가 11월 4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린다. 지현희(FM87.7) 진행으로 새가나안 찬양대와 바다위십 김명연, 바리톤 김지섭이 출연한다.

▲문의: (718)213-1985

AG 뉴욕신학대학(원) 개교40주년 감사예배 및 음악회

하나님의교회 뉴욕신학대학(원)(학장 김장만 목사, 이사장 이우용 목사)이 개교 4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 및 음악회를 갖는다. 일시는 11월 11일(주) 오후 5시, 장소는 뉴욕프라이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 루살렘성전.

▲문의:

제 6회 CCV 말씀축제

제 6회 CCV(Christian Children Voice) 말씀축제가 11월 17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뉴욕은혜교회에서 열린다. CCV는 어린이 QT 영상제작과 어린이 사역자들과의 인터뷰 및 세미나, 세계 크리스천 어린이들의 사역소개 및 간증 프로그램, 아트와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문의: (347)737-5768 김성광

사무직원 구함

필그림선교회(담임 양종길 목사)에서 사무행정 담당 직원 찾고 있다. 자격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세례교인으로 교회생활 3년 이상 된 이중언어 가능한 자, 컴퓨터 사용(Ms Office 등)이 가능하고 사무행정 업무 경험자로 이력서와 신앙간증문을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 hr@pilgrimchurch.org

“전도인의 자화상 훈련”, 강사 민경설 목사 북미주원주민선교회 목회자 전도동력 세미나

뉴욕교협 산하 북미주원주민선교회(NYNAMA, 회장 이재봉 목사)가 주최한 목회자 전도동력 세미나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에 걸쳐 뉴욕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박준열 목사의 경배와 찬양 후 한재홍 목사가 기도한 후 시작했다.

강사 민경설 목사(광진교회 담임)는 “전도인의 자화상 훈련”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전도인은 북

도나 자화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남이 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중요하다”며 “인간은 자화상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긍정적 자화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 복된 자상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2. 우리 문제는 병든 자화상이다 3. 십가자를 경험하라 4. 복된 자화상의 비전을 보아라 5. 복된 자화상을 실제 훈련해보라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

민 목사는 “비교의식, 빈곤의식, 세속의식, 실패의식으로 병든 자화상의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주님의 믿음으로만 고칠 수 있다”며 “1)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2)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3)부정적 생각은 무시하고 긍정적 생각을 하며 4)환경의 부정적 언어를 금하고 복된 말을 하고 5)복된 자화상 가진 자와 교제하며 6)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7)비전을 선포하라”고 말했다.

또 북미주원주민선교회는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민경설 목사는 강

사로 가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민 목사는 첫날 저녁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행2:36-39, 요16:8-9), 둘째 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삼상17:31-40), 셋째 날 “엘리아를 쫓아라”(왕하2:1-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북미주원주민선교회는 2006년 북미원주민 연합선교로 시작해 2014년 발족했으며 6월부터 6주간에 걸쳐 선교훈련을 한 후 단기선교회를 떠난다. 2019년에는 미네소타 4개 지역과 위스콘신 3개 지역 등 총 7개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된다. 참가비는 일인당 450달러.

자세한 문의는 김기호 목사(646-763-4211), 함성은 목사(917-608-1075), 배성현 목사(201-989-6091)에게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북미주원주민선교회 목회자 전도동력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63차 월례기도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63차 월례 기도회

뉴욕지구한인장로연합회(회장 김영호 장로)가 가을 단풍 시즌을 맞아 지난 26일 제 63차 월례 기도회를 아너스 해브 리조트 호텔에서 열었다. 햇볕선교회(담임 하정민

목사) 초청으로 열린 이번 월례기도회는 오전 후 사과밭 관광과 허드슨 강을 따라 산책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농아인교회 설립10주년 기념감사 및 임직예배에서 (강단에서) 김철희 목사가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 2명 농아집사 첫 안수 뉴욕농아인교회 설립10주년 기념감사 및 임직예배

뉴욕농아인교회(담임 이철희 목사)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기념감사 및 집사안수 예배를 10월 28일 주일 오후 5시 하크네시야교회에서 드렸다.

이철희 목사는 “10년 전 한명의 농아인도 없이 농아인교회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련히 보시고 도와주셨고, 성령께서 인도 해주셨다. 그리고 2명의 농아 집사를 첫 안수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고 말했다.

뉴욕농아인교회는 한국인 농아인 뿐 아니라 다민족 농아인들을 위해 사역을 확대했다. 수화도 미국수화와 한국수화가 주언어로 동시에 사용된다. 이날 첫 집사안수를 받은 Yeuk Yue Chan과 Kam Ming Law도 비한인이다.

이날 행사를 위해 한국에서 온 농아인 대상 사역자인 임혜숙 목사(수원할렘루아농아인교회), 이우복 목사(부산에바다농아교회), 정휘준 목사(AG 한국농아 지방회장), 김병택 목사(서울비전농아교회), 정창열 목사(한국농아교협 회장) 등이 순서를 맡았다.

미국에서는 조쉬 타바레즈 목사(뉴욕은혜의수화농아교회), 씨우피 이원 목사와 응숙이 사모(홍콩 농아인교회), 낸시 토네슨 목사(농아 사역자) 등이 순서를 맡았다. 또 김일국 목사(뉴욕환성교회), 정승진 집사(사랑과진리교회), 김은경 사무총장(YWCA) 등이 축사했다.

예배 및 임직은 모두 수화로 진행됐으며, 뉴욕농아인교회 찬양대

가 수화로 찬양을 했다. (기사제공: 뉴욕농아인교회)



윤세웅 박사의 제 5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증명하는 지름길” 제 5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 강사 윤세웅 박사

윤세웅 박사의 제 5회 '신학과 과학' 세미나가 10월 29일 저녁 5시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서 열렸다.

미주기독교방송(KCBN) 사장 및 이사장인 윤세웅 박사는 외과(한국) 비뇨기과(미국) 전문의로 미주 기독교협회 및 한인사회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세미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홍석 목사 인도로 기도 정순원 목사, 특송 조나단 박 테너, 설교 방지각 목사, 광고 한기술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박사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고후5:17)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최고의 행복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라며 “하나님이 형상은 의의 형상, 거룩의 형상, 지식의 형상으로, 인간의 5가지 회복인 영적인 생명 회복, 지적 영성 회복, 거룩성, 만물 주관능력, 유복적 속성 등을 회복 함으로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내자”고 강조했다.

2부 세미나는 전희수 목사의 강사소개 후 윤세웅 박사가 (1)진화론의 의학적 오류(100%) (2)의

학적으로 본 창세기 홍수 사건 (3) 인간의 육체적 부활에 관한 고찰 등에 대해 강의했다.

윤 박사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증명하는 지름길로 진화론은 100% 거짓”이라며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가설로 적은 것인데, 진화론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생명체는 염색체 수가 다른 종은 후손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했다.

즉 원숭이와 인간은 염색체 수가 다르기 때문에 후손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여 XX, 남 XY가 합쳐 이뤄진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윤 박사는 강조했다.

윤 박사는 이어서 창세기 홍수 사건과 인간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강의했다.

세미나를 마친 뒤 한문수 목사의 만찬기도 후 친교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미나는 KCBN과 페이스신학교 동문들이 후원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 및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2018년 후원자의 밤 11월 25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10월 정기예배 및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10월 정기예배 및 월례회가 지난 24일 리빙스톤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지난 10월초 과테말라 단기선교팀의 선교보고가 있었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 설교 이종명 목사, 합심기도, 축도 유상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허의 열매”(잠 18: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들이 좋은 말만 하는 설교자가 돼야 하는가, 바른 말을 하는 설교자가 돼야 하는가”라며 “세상에서는 악플로 인해 우울증이 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 말은 인격과 생각, 뜻을 나타내며 약도 되고 독도 된다. 바른 말, 고운 말, 진실한 말, 격려의 말, 따뜻한 말을 함으로 약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받은 사랑을 다하는 기아대책이 되자”고 강조했다.

합심기도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회장 및 회원을 위해 △결연아동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롤복바바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코스타리카 김형구 이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11월 25

일 후원자의 밤을 위해, 제목으로 기도했다.

2부 회무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전희수 목사가 기도한 후 사역보고를 했다.

사무총장 전희수 목사는 “과테말라 선교보고를 쓰면서 은혜를 받았다”며 “현지에 가보니 기도와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지속적이고 즉각적인 웹사이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후원자의 밤 순서 및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 회원들에게 초청장이 배부됐다.

‘2018년 후원자의 밤’은 11월 25일(주) 오후 5시30분 뉴욕에벤에셀선교회(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린다.

11월 월례모임은 21일(수) 오전 10시 30분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후원자의 밤 최종 점검을 하게 된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아동결연을 주 사역으로 하며 월 30달러로 1명의 어린이를 후원한다. 웹사이트 breadngospel.org (유원정 기자)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gmail.com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18회 창작성가의 밤 은혜가운데 열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전현미)가 주최하고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와 언론사들이 후원한 제18회 창작 성가의 밤이 10월 28일 저녁 6시 세리토스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에서 열렸다.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가 새로운 성가곡을 부르는 모습

본 성가의 밤에 첫 무대를 장식한 감사한인교회 임마누엘 성가대(강민석 지휘, 유경성 반주)는 ‘내 마음 찬양하네’(정정숙 시, 황광선 곡),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오영례 시, 이해경 곡)를 들려주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Glory & Peace Choir, Choraleum Mission Choir, Orange Mission Choir, Grand Festival

Choir, LA Chamber Choir 등 6개 찬양단이 차례로 단에 올라 ‘동행’, ‘보혈의 이야기’, ‘형통 축복’ 등 14

곡의 창작 성가곡을 들려줬다. 성가의 밤을 위해 주옥같은 시를 제공한 이들은 고영준, 김주경, 김

화정, 방동섭, 석정희, 은파 오애숙, 오영례, 정솔로몬, 정정숙, 지인식 시인이며, 여기에 14인의 작곡가들이 곡을 붙였다.

성전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은 새로운 성가곡이 발표될 때마다 환찬 박수로 하나담께 영광을 돌리고 깊은 감동에 잠겼다.

한편, 찬양에 앞서 전현미 회장은 “올 한해를 마무리 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창작성가의 밤은 방동섭 목사가 기도를, 조성환 목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눅5:4-11)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백경환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남가주한인교회 음악협회 총회는 오는 12월 8일(토) 낮 12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성자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어린이전도협회 성탄절 교사 강습회

어린이 전도협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맞으며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 성탄절교사 강습회를 준비했다. 11월 3일(토) 어린이전도협회 오피스(3130 Wilshire Blvd, 3rd Fl.)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되며 성탄찬양과 율동, 뮤지컬, 크래프트, 특별활동, 드라마, 복음 매치, 다양한 성탄절 설교 및 시청각 자료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회비 50달러.

▲문의: (213)382-1544

월드미션대학교 장학기금 후원의 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아프리카학생 장학기금 후원의 밤을 11월 3일(토) 오후 6시 본교 강당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100달러(1인당).

▲문의: (213)388-1000

미주장신대 개교 41주년 후원의 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개교 41주년 후원의 밤을 11월 5일(월) 오후 6시 할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562)926-1023

LA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LA할렐루야교회(4120 W Pico Blvd. LA)는 유종길 원로목사 추대 및 이병호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1월 4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323)766-9922

제1회 선교박람회

KWMO(한인세계선교교회운동)는 제 1회 선교박람회를 ‘하나님은 당신을 황금기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주제로 5일(월)부터 7일(수)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갖는다. 일정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이며 수요일 오전 10시40분에는 KWMO 창립예배를 갖는다. 한편 박람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4일(주) 오후 4시에는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환영만찬 시간을 갖게 되며 오후 7시에는 박람회 찬양전야제를 갖는다.

▲문의: (714)350-6957

제 10회 시로 드리는 예배

시전(대표 이민미 전도사)은 제 10회 ‘시로 드리는 예배’를 11월 10일(토) 오후 4시 아이엘교회(담임 정종원 목사)에서 갖는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서향 1기 수료전시회를 갖는다.

▲문의: (818)590-6469

나침반교회 요한계시록 세미나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겨자씨 성경연구원 주최로 5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 교회 103호에서 갖는다. 목회자를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의 강사는 김선웅 목사(겨자씨성경연구원 대표).

▲문의: (714)213-5766 박경수 목사

월드비전 토크콘서트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는 월드비전 토크콘서트를 10일(토) 오후 6시에 갖는다.

▲문의: (323)221-9531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음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예방과 인식 전환에 한인 교회의 역

할이 크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에는 관련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213)235-484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아이엘교회 창립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김선아, 신소피, 신현수 집사 임직 아이엘교회 설립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아이엘교회(담임 정종원 목사) 설립 9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이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정종원 목사는 “2018년은 많은 분들이 소천하시고 슬픔의 시간을 많이 보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9년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소망과 비전을 주신 것 같다. 이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본교회 찬양팀(담임 김규호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김영희 장로가 기도했으며 ‘창립 9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제목으로 영상소개가 있었다. 이어 김철웅 선교사(인도네시아)가 ‘신앙의 일관성’(행28:23-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정종원 담임목사 집례로 임직식이 열렸다. 임직식은 임직자 소개 및 문답, 임직자 고백, 안수기도로 이어졌으며 김선아, 신소피, 신현수 씨가 집사로 임직 받았다.

김선아 집사는 “집사직분을 받는다는 게 두려웠으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인 것이 부끄러웠다”며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건강한 신앙인

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소피 집사는 “집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부여된 직분 같다”며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수 집사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교회를 다녔지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이야기에 교회에 대한 시선은 부정적이 됐다”며 “하지만 그분들의 자리에 서게 되니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이해하게 됐다. 아이엘교회를 출석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문들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풀려나갔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됐으며 부끄러웠던 신앙인이 돼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임직자 고백에 이어 임윤택 박사(풀러신학교)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정종원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순복음교회 이일 2대 담임목사 취임예배가 열렸다

이일 박재만 목사, 취임 이일 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가 28일 오후 5시에 성황리에 열렸다.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OC 지방회(지방회장 안병준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는 이일 목사가 본 교회 설립 목사인 박재만 목사에 이어 2대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안병준 목사 사회로 열린 이날 예배는 이선자 목사(북미총회 여성분과위원장, 순복음제자교회)가 기도했으며 나성순복음교회 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어 진유철 목사(북미총회 총회장, 나성순복음교회)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눅8:22-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안병준 목사

가 사역과 공포를 했다.

이어 임현철 목사(북미총회 LA 지방회장)가 권면을 이영규 목사(북미총회 증경총회장)가 축사했으며 이일 목사가 답사했다.

이날 예배는 고영일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선교담당) 축도로 마쳤다.

이일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B.Th),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아시아퍼시픽신학교(MA)를 졸업했으며 베데스다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D.Min)을 수료했다. 2000년 목사안수 받았으며 2009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나성순복음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했다.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카니정조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인가정상담소와 같은 에이전시를 찾아가기 전에 종교계 관계자이거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이에 한인가

정상담소는 7년 전부터 한인 목회자들과 교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행사들을 개최해오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한인 종교계와 협력해 한인사회에서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 Youth예배: 오전 1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40(월-금)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213)481-2779 / F: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cs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전 11:20 영어권 (장스: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 생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제복을 즐겨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8-7728 (전화 행사 전용), Fax: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요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전 11:45 수요예배(화-토): 오전 6:00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5:00 새 생 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주일학교: 오전 9:00 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F: mail@bethelch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ethelch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영고생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공부(목요일):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00 Tel: (323)641-0591 / ys104@hotmail.com / www.laagum.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A),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정성기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주일학교: 저녁 7:30 새 생 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버린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예배: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일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 생 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5:30(월-금), 6:00(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월-토) 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 생 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A), Fax: (310)530-8400 2426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영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청년) 창립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함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교총·한기연 통합 로드맵 나왔다

내달 16일 통합총회 열기로 합의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과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28일 서울 중구 코리어나호텔에서 통합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달 16일 통합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서대로 두 기구의 통합이 성사되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3인의 공동대표회장을 선출하고 1명이 이사장과 대표회장을 맡아 책임 경영을 하기로 결정했다. 통합총회의 임원은 한교총 규정에 따르며 한기연에서 추천하는 전권직 교단장 1인을 추가해 '한교총 3명+한기연 1명'의 형태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에서 1명, 예장 백석대신과 고신 합신 개혁에서 1명,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순복음과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1명, 한기연 1명이 통합기구의 공동대표를 맡게 된다.

기관 명칭은 한국기독교연합을 사용할 예정이다.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 위치한 한교총 사무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통합 과정의 최대 걸림돌로 제기됐던 직권 승계와 부채 문제도 명시됐다. 양측 기관의 직원은 전원 승계하기로 했다. 통합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한다. 사무총장은 1명만 두기로 했다.

한기연의 부채는 통합 전 정산을 하되 9000만원 이내에서 통합총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회원단체와 협력단체는 별도의 협의체를 조직하고 대표 1명에게 공동회장직을 맡기기로 했다. 법인 부채는 신입 회장단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통합과정을 지켜본 한 관계자는 “한기연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양측이 하나 돼 공동교 중심, 현직 교단장 중심의 공동대표제를 운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400여명 피지서 구출을”

과천 신옥주집단 피해자들, 정부에 긴급 구조 요청

은혜로교회피해자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옥주집단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 신도 400여명의 구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안도(50)씨는 “신옥주집단에 빠진 아내를 이혼 후 피지에 들어갔고 딸은 현재 경기도 과천에서 집단생활을 하고 있다”며 “신옥주집단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순식간에 파탄났다”고 울먹였다. 그는 “피지에는 대한민국 국민 400여명이 지금도 하루 14시간 중노동을 하며 노예생활

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누군가의 가족, 착한 이웃이었다. 그런데 신씨를 만나면서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학업에 힘써야 할 청소년들마저 먼 미국땅에서 신씨의 노예가 됐다”면서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2년 3개월간 피지에 거주하다 지난해 탈출한 박모(71)씨도 “신씨는 모임 때마다 전쟁 기근 지진 재난 등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대기근의 때 하루빨리 피지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가족 중 한 명이라도 피지에 먼저 가서 전쟁과 기근의 때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유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피지는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 외출도 못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고 회고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신옥주집단의 나머지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득(65·여)씨는 “신씨에게 세뇌된 딸은 수시로 나를 폭행했다”면서 “지난해 두 아이를 버리고 피지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신도들에게 매달 현금 할당량이 있었고 이를 채우기 위해 식당일과 파출부, 종이가방 접기 등을 했다”면서 “피해자들이 한국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신옥주집단

의 관계자는 “외형상 한교총이 대폭 양보하긴 했지만 공교단 중심의 통합이라는 주요 원칙을 지켰고 한기연도 1명이 공동대표를 맡기로 하고 직권 승계는 물론 부채 해결의 길이 열린 만큼 한국교회 일치를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합의 과정에서 교착 상황이 계속됐는데 장종현 백석대 총장의 중재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장 총장은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 부활과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면 양보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덮어주고 하나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도자들이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희생과 섬김, 봉사의 자세를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의 재산을 압류해야 한다”고 목정을 높였다.

이운재(55)씨도 “신옥주집단은 그동안 작물 종자를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고 외화를 반출하는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서 “검찰은 이런 사이비종교집단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국회도 이단·사이비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단사이비특별법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날 20분 분량의 ‘타작마당’ 영상 원본을 공개했다. 영상에선 딸과 엄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드는 폭행 장면이 나왔다. 성인들이 다수의 어린이를 구타하는 아동학대 장면도 담겨 있었다.

미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성 이슬람대책국민운동 공동대표도 “유럽의 진보진영에선 이슬람교에 대해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이슬람 포비아라고 낙인찍는다”면서 여성차별에 우호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슬람문화권에서 여전히 여성 할례와 히잡 착용 강요, 일부다처제 등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과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식의 표현으로 이슬람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이슬람교 왜곡·

“이슬람교 편향성 교육부가 바로잡아야”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중·고등학교 역사·세계사 세미나

진실역사교육연구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고등학교 역사·세계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가 이슬람의 여성차별을 옹호하고 폭력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등 편향돼 있다며 교육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욱 아세아연합신학대 세계지역연구소 아랍문화수석연구원은 이슬람 포교 소책자와 우리 교과서를 비교했더니 유사점이 많이 발견됐

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슬람 세계와 서구에서는 그들의 가르침과 달리 테러와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다수 교과서에선 ‘신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교리는 민족 국가 혈연을 초월해 많은 사람을 형제애로 포용했다’고 서술하면서 이슬람교를 평화 평등 관용의 종교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포교 소책자에 따르면 ‘일부다처는 남성의 성적 만족을 위한

방식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주장한다”면서 “교과서도 이런 흐름에 따라 ‘여러 명의 아내에게 공평하게 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해 여성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여성차별에 우호적인 서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원은 “이슬람문화권에서 여전히 여성 할례와 히잡 착용 강요, 일부다처제 등을 통해 여성 인권을 짓밟고 있다”면서 “그러나 교과서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종교적 편견을 극복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식의 표현으로 이슬람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주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의 이슬람교 왜곡·

“북한 복음화, ‘툭다운’ 방식으로”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주최 ‘목회자통일준비포럼’

통일을 위해선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교포교회, 세계교회가 힘을 합쳐 대북선교 및 통일국가 수립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복음화를 위해선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북한 지도층의 마음을 얻은 뒤 사회 경제 정치 순으로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하충영 송실대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장은 25일 서울 구로구 한 호텔에서 열린 ‘제7회 목회자통일준비포럼’ 기조발제에서 “한국교회와 한인디아스포라교포교회,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구심력이 돼야 한다”며 “구한말 기독교인

이 다함께 모여 독립을 외쳤듯 한민족 그리스도인도 통일을 위해 뜻을 모으고 정책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경우 디아스포라들이 뜻을 모아 독립국가를 세웠다”며 “이는 통일국가를 세울 때 한반도 밖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통일 정신과 정책을 공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허문영 새평화한국 대표는 ‘새로운 통일 환경에 따른 정세 분석’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사회 경제 정치 순으로 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이보다 가장 먼저는 북한 지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이렇듯 톱다운

방식으로 할 때 복음 통일 및 북한 복음화가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음 통일이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섬김과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그리스도인이 모여 남북 각 갈등 종식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한다면 복음 통일의 길이 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통일 및 통일선교 원칙과 기준을 망라한 ‘통일선교언약’도 발표됐다. 통일선교언약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통일운동에 지침이 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통일선교 방식, 통일과정, 통일 이후 사회통합과 교회의 사명 등이 담겼다.

포럼에 참가한 각국 한인디아스포라교포교회 지도자들은 언약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 두먼의 도문교회 박성진 목사는 “

한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통일 후에도 한국교회가 분열돼 싸우고 있으면 통일시대에 교회는 무기력한 존재로 남게 될 수 있다”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양측 인사들도 이 총회장의 통합 의지에 힘을 보탰다. 박정근 전 서대문측 총회장은 “교단이 분열되는 것은 천국의 문을 닫는 일과 같다”며 “통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전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이렇게 다시 만나야 얼마나 좋으냐”며 “함께 손잡고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라고 말해보자”며 화합을 권했다. 양 교

단 목회자들은 함께 손을 잡으며 인사했다.

워크숍에서는 교단 통합 논의 외에도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처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 신현욱 신 천지전문이단상담소장은 ‘사교집단 신천지 예방과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의했다. 이단 대처 세미나는 여의도순복음과 서대문측이 교단 통합을 앞두고 현장 목회자들이 신천지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법을 요청해 실시했다.

신 소장은 세미나에서 신천지에 맞서 싸우려면 교회들이 연합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워크숍은 30일까지 이어졌다.

3만 성도 기도로 하나 됐다...

신사참배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 위한 일천만기도대성회

“주여,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날로 개혁될 수 있게 인도하십시오.”

28일 오후 3시 한국교회일천만기도운동본부 주관으로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열린 ‘신사참배 80년 회개 및 3·1운동 100주년을 위한 한국교회일천만기도대성회’에 모인 3만여(주최 측 추산) 교인들이 폭우 속에서 눈물의 기도를 토해냈다.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4시를 넘어가면서 폭우로 바뀌었다. 비바람이 불고 기온도 떨어졌지만 광화문사거리에서 덕수궁 대한문까지 운집한 참석자들은 대성회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두 손을 모았다.

대성회는 일제 강점기 때 범한 신사참배의 죄를 지금의 교회가 짊어지고 공개적으로 다시 회개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들이 참여해 근래 보기 드문 ‘연합과 화합의 장’이 됐다.

기도회는 목회자들이 십자가를 진 채 무대를 향해 100여m를 걸어가면서 시작했다. 대회를 발표할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심각한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연합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면서 “1903년 원산과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과 같은 거룩함을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자”고 선포했다.

엄기호(한기총) 유중현(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동석(한기연) 전계현·전명구·최기학(한교총) 정서영(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대성회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며 교인들의 마음을 한데 모았다.

전명구 감독회장, 법원 결정에 지위 회복

“예정대로 30일 총회” 기감 정상화 박차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전명구 감독회장)가 오는 30일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제33회 총회를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기감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교단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 감독회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기감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감독회장은 “기감 내부 문제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 감독회장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정지를 당한 6개월 동안 스스로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기감 본부 내부에서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신중히 조사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재정이 절차대로 지출되지 않은 부분도 제대로 살피겠다”며 본부 정상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감리교 안에서 시급한 본부와 임벌 개혁을 착실히 준비해 하나씩 실천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의심보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는 청사진도 내놔다.

독일교회에 난민 문제를 묻다...

예장통합 평양노회 ‘평평루 대화마당’

난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독일교회가 손을 내밀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는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평화 통일을 향한 평양-루트비히스부르크 노회 대화마당(평평루)’ 개최를 밝혔다. 그는 “감리교 안에서 시급한 본부와 임벌 개혁을 착실히 준비해 하나씩 실천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의심보다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감리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겠다”는 청사진도 내놔다.

평양노회 목회자들은 제주에 있던 난민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만큼 교회가가 문제를 멀리할 수 없다고 봤다. 평양노회장을 맡고 있는 조인

회개기도는 대회장인 윤보환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대표회장이 인도했다. 주최 측은 ‘신사참배와 우상숭배의 죄 회개’와 ‘한국교회의 일치’ ‘핵 폐기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상상’ 등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슈 아홉 개를 선정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을 대표해 강종근(1942년 순교) 양용근(1943년 순교) 주기철(1944년 순교) 목사의 후손에게 순교자 추서패를 전달하며 순교의 참의미를 되새겼다.

설교에 앞서 참석자들은 “우리는 사랑의 땅이 하나가 됐습니다”는 구호를 외치며 서로 악수를 하고 껴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임을 확인했다. 설교는 정성진 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와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가 각각 ‘신사참배를 넘어 삼일정신’과 ‘한국교회 연합과 미래를 위한 재언’을 주제로 전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선포된 ‘3·1운동 100주년 성명서’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야욕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백배사죄하고 법적 배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예배 중 모은 헌금은 전액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나눔의집에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회개기도를 통해 거듭나기로 다짐했다.

김영석(새에덴교회) 집사는 “그간 대령집회에서 정치적인 구호들이 많이 나와 눈살을 찌푸리곤 했는데 오늘 기도회는 순수하게 기도만 하며 한국교회와 걸여온 과거에 대해 회개하고 미래의 비전을 그렸다”면서 “추운 날씨였지만 기도회에 참여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전 감독회장은 전날 저녁 기감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에서 강승진 임시 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전달받았다. 전 감독회장은 지난 4월 법원이 2016년 9월 치러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이므로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직무가 정지됐다. 전 감독회장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지난 22일 이를 받아들여 전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해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이미 결정된 총회 일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전 감독회장은 “총회 일정은 감독회의에서 확정된 만큼 굳이 다른 날짜로 옮길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기독교타임즈와 기감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총회 일정을 공고한 뒤 예정대로 30일 개최할 것”이라며 총실위원들의 동의를 구했다. 총실위원들은 감독회장의 제안에 만장일치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기하성부터 분열의 역사 종식시켜야”

‘기하성연합회 워크숍’, 지방회 임원 등 600여명 ‘통합’ 논의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과 서대문 측이 29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기하성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다음 달 20일 양 교단의 임시 통합총회를 앞두고 마련됐다. 지방회 임원 등 목회자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영훈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총회장은 이날 기하성의 통합 논의가 향후 통일과 한국교회 통합 등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밝혔다. “우리는 본래 하나”라며 운을 떤 이 총회장은 분열의 역사를 종식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은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한국교회는 인간의 잘못으로 나뉘어 갈등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받았다”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서로를 사회 법정에 불러내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통합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 총회장은 “기하성 통합 후 한기총 등 연합기관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안에 한국교회가 하나로 뭉쳐 1000만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돼야

mission 선교의 창 (111)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미주 한인교회에서의 선교 동원

땅 끝까지 이르러(To the ends of the earth)! 지난 30년 동안 한인 세계 선교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서부터 그 성장 속도가 완만해졌다. KWMA 발표에 따르면 연도별 선교사 파송 수는 2013년부터 뚜렷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즉, 2013년에는 1,003명 증가, 2014년 932명 증가, 그리고 2015년에는 528명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0명 증가 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의 정체 현상과 맞물려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다. 이러한 때에 미주에 있는 한인교회가 세계선교를 위해 나서야 한다. 미주에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5,500개 중 절대 다수인 약 4,300개가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로마라 일컬어지는 미국 땅에 수많은 한인교회들을 세우심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선교 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이를 위해 미주 한인교회들이 일어서는 일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는 비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다민족 교회들도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미주 한인교회는 비록 대다수가 영세하고 산적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의 문제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며 열방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 첫 시도가 바로 동원이다. 이 땅의 미완성 과업을 위해 영적, 물질, 인적 동원을 하는 것이다.

합집회들을 통해 일어났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선교대회에 대한 열기가 식어지면 서 참석자와 더불어 선교헌신자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원인이 무엇인가? 각종 선교대회가 신선함이 없이 전통적 내용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벤트적 대회에 식상해 하며 점차로 등을 돌리기 마련이다. 지금은 정보화시대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 들어선 때이다. 따라서 시대 변화에 맞게 선교대회도 맞춤형으로 진화해야 한다.

선교동원을 위한 새로운 대안

졸업하면 그 빛을 갠야 한다. 자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단기 사역은 누구나 가능하다.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평생 선교지에 가서 죽으라"고 하면 누가 갈 것인가? 먼저 청소년 때부터 선교여행(Mission Trip)으로 타문화를 경험하게 하고 준비된 자들을 단기 선교(Short Term Mission)로 보내야 한다. 이 과정은 장기 선교사를 확보하는 절경이 된다.

물론교의 경우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녀가 1년 반이나 2년 동안 선교지에서 자비로 봉사하게

한국선교연구원(KRIM)은 한인 MK들 중 2012년까지 2.3%만이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보고했다.

MK들은 다른 이들에 비해 선교사로서 소명 받을 기회와 준비비가 크다. 선교사 부모를 두고 타 문화권에서 자란 것이 어찌 우연이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쳐두고 누구를 차세대 선교 주자로 부를 것인가? MK들은 신앙과 현지 문화와 언어 위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 100m 경주라면 이미 절반 이상의 앞에서 출발하게 된 것과 같다. 만일 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그 잠재력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좋은 일꾼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산고의 수고를 곁들여 투자해야 한다. 어떻게 이들을 차세대 선교주자로 키울 것인가? 첫째로 선교사 부모의 역할이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적어도 고교까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신앙인, 한국인, 현지인으로서 균형 잡히게 키우는 것이다. 이것은 수직선교의 일환이다.

둘째는 파송 선교회의 역할이다. MK들을 위해 부모가 할 수 없는 교육적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

질 수 있다. 이로써 목회자 선교사를 배출하는 데는 많은 시일과 후원 펀드 등이 필요하나 전문인 선교사는 그렇지 않기에 부담이 덜하다. 따라서 전문인 선교사는 말씀사역과 사회와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언어훈련이 요구된다.

전문인 선교사는 아마추어 선교사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말씀사역과 전문기술 사역의 이중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충분히 교육받고 확신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선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주 한인교회에는 선교열정을 가진 많은 전문인들이 많이 있다. 이들은 선교 동원해야 한인 세계선교가 힘을 펼 것이다.

5. 시니어들을 위한 선교동원

미주 한인교회는 젊은이들보다 중장년층이 두터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제는 100세 시대를 내다 보고 있다. 시니어들은 앞으로 더욱 그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시니어들은 선교사로서 현지 언어학습이나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 건강 문제로 자주 귀국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무엇보다 고착화된 사고나 권위의식이 있다. 수직적 관계 중심의 한국문화와 정서에 익숙해 있기에 그것이 자칫 젊은 선교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저들을 독립적으로 낯선 곳에 파송하면 문제가 크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뿌리는 내리고 있는 장기 선교사와 협력하게 하면 얼마든지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 이유인즉 첫째, 시니어들은 가장 사로부터 자유롭다. 특히 자녀 출산, 부양이나 교육적 책임에서 해방된다. 둘째 시니어들은 어느 정도 재정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간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이나 부동산 그리고 연금 등이 있기에 후일 비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시니어들은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경험과 지식, 전문성이나 기술 등은 선교지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넷째, 시니어들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가까이 가족들로부터 친지나 교우들 그리고 사회활동에서 알게 된 주마교우들이 있다. 시니어가 선교지에 가 있으면 자연히 그 인적 자원들이 연결되기 마련이다.

다섯째 시니어들은 종말론적 시각이 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를 위해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리므로 시니어들은 사역에 집중할 수가 있다.

6. 다민족 사역을 통한 선교 동원

지금의 세계는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역화(Localization)가 동시에 일어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의 시대이다. 그 결과 여러 민족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다중 문화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꼭 비행기 타고 멀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갈 뿐만 아니라 우리 곁으로 오는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맞이해야 한다.

미국은 세계인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 여기에서 타민족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가 영향을 미칠 사람이 본국에 최소한 10명은 있다. 특히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차출된 유학생들이 약100만을 웃돈다. 저들은 미래에 민족과 국가를 이끌 지도자들이다. 이로써 미주 한인교회가 학원 선교에 눈을 뜨고 헌신한다면 세계선교의 완성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미주 한인교회와 여러 유학생들과 다민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가정과 교회를 오픈해, 고독하고 배고픈 저들을 초청하며 그 필요를 돌보는 일이다.

나아가 교회 안의 한인 대학생들을 선교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즉, 자기 학교 내의 외국 친구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게 한다. 만일 교회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 선교사나 선교기관과 연합하면 된다. 해마다 큰 대가를 지불하며 단기선교를 갈 힘이면 충분하다.

맺음 말

하나님의 선교 "Missio Dei!" 우리는 과연 이 송고한 사명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선교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힘은 너무나 제한되고 분산되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문턱에서 우리는 관행적 선교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분업화, 전문화, 조직화로서 함께 앞을 헤치고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미주 한인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높은 산에 오르면 야산들이 보이며 다 미국에서는 전 세계가 보인다. 하나님께서 미주 땅에 한인교회를 세우심은 결코 우리끼리만 안위하며 예배하라는 차원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인이라는 자체 울타리를 깨고 결의 수많은 다민족과 열방을 향해 선교적 소임을 다 해야 한다. 그것은 영적, 물질, 인적 동원을 통해서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시는 특권이며 축복이다.

jrson007@hanmail.net

미주에는 약 4,300개의 한인교회가 있다.

우리는 미주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의식해야 한다.

그것은 조국과 열방을 향해 선교적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은 무엇인가? 선교 박람회(博覽會, Mission Expo)를 통한 선교동원

중국에서 흔히 우스개 소리로 쓰는 말이 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길을 찾아 가면 되고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길을 찾아 가면 안 된다." 미주에 거하는 청년들 중장기 선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Loan)으로 공부하기에

된다. 저들은 단기 사역을 위해 가족, 학업 그리고 직장을 잠시 내려둔다. 현대선교에 있어서 단기 선교가 이처럼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된 예는 선교역사 속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선교지의 상황이 급변했고 시대에 맞는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했음을 감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때로는 과학자로, 엔지니어로, 외교관으로, 교사와 교수로, 의사와 간호사로, 스포츠 인으로 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들은 없었다. 단기선교의 가장 큰 목적은 참여하는 사람들을 선교자원화하는 것이다. 장기 선교사는 우연히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여행으로부터 출발해 단기선교를 거쳐 헌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는 것이다. 모국방문 추진, MK수양회, 여타 자녀교육과 관련한 프로젝트 등이다.

셋째는 교회 크기에 비례해 한 명씩 입양하는 일이다. 현재 MK들은 세계의 곳곳에서 외롭고 배고프다. 미주 한인교회가 이들에 대한 무관심, 무대책, 무능력이란 3부에서 탈피해 마치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고 키우면 저들은 부모세대의 선교 바톤을 이어받아 놀라운 잠재력을 드러낼 것이다.

4. 자비량 전문인을 위한 선교 동원

196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평신도 선교운동과 더불어 전략적인 대안으로 전문인선교가 진행되어왔다. 전문인은 특수한 직종에 제한된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직업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을 지칭한다. 창의적 접근 지역이나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정식선교사의 입국을 거부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목사, 선교사를 통한 선교보다 다양한 세속적인 직업을 가진 전문인을 통한 선교가 필요한 때이다.

전문인 선교는 비자를 쉽게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금자족하며 현지인과 쉽게 접촉점을 가

2. 선교여행(MT)과 단기선교(ST)를 통한 선교 동원

중국어에서 흔히 우스개 소리로 쓰는 말이 있다. "안 되는 일도 되는 길을 찾아 가면 되고 안 되는 일도 안 되는 길을 찾아 가면 안 된다." 미주에 거하는 청년들 중장기 선교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 학생들이 국가에서 주는 학자금(Loan)으로 공부하기에

3. 선교사 자녀(MK)를 위한 선교 동원

MK란 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를 약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부모가 선교사로서 해외로 이주해 타 문화권에서 자라났거나 아니면 그 곳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KWMA 통계에 의하면 2015말에 MK들은 18,543명이다. 적지 않은 수이다.

1. 선교 박람회(博覽會, Mission Expo)를 통한 선교동원

선교동원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기도와 물질이 따라가고 사역도 일구어진다. 그간 한인선교 동원은 교회들의 부흥성회와 CCC, IVF, ESF, YM 등의 대학 선교단체들의 집회와 선교한국, KWMC, KWMA, KOSTA, JAMA 등이 주관하는 연



교회 이동 디스플레이 및 디자인 전문

카라반캐노피는 대형프린팅 분야에서 18년의 전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안 수정, 로고 제작, 한글 캘리그래피 디자인 등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며 고성능 프린트 작업으로 최고의 만족도를 약속드립니다.

- ✓ 현수막 | 천막
- ✓ 접이식 배너 | 디스플레이
- ✓ 프로모션 상품
- ✓ 디자인서비스

VINYL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2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50** Plus tax if applicable

MESH/POLY FABRIC BANNERS

2' X 5' with grommets : **\$35** Plus tax if applicable

4' X 5' with grommets : **\$70** Plus tax if applicable



플래그



X 배너 거치대



벽걸이 포스터



미디어벽



롤업배너



현수막



2018 교회표어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2017.12.31 주일 저녁 10시 30분 비전센터 분당

성탄 축하예배 Merry Christmas

1460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 T. 877.922.6679 | 한국어. 714.367.3046 | www.caravancanopy.com

선교소식

스리랑카어-한국어성경 완성

스리랑카연합선교회 · 대한성서공회 협업 2년반만에



노동자 선교 연합체인 스리랑카 연합선교회(회장 고현미 목사)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일신...

국내 체류 중인 스리랑카 노동자를 위한 성경이 나온다. 스리랑카

에서 파송된 이현주 스리랑카 선교사가 2년 반 동안 협업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선교회 관계자는 국내 체류...

통계청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국내에 합법 체류 중인 스리랑카인은 지난해 기준 2만 2200여명이다. 불법 체류자까지 합하면...

교회 탄압 규탄 청원서에 서명 상장교회 연사오지에 목사 신변 위협



의 집을 찾았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를 협박했다. 그는 이틀남 SNS에 '긴급 기도요청'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때 나는 집에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어머니와 아내를 협박하면서 나를 만나 두 가지를 조사하겠다고 했다. 청원서에 서명한 일과 10월 해외여행을 계획한 일을 조사한다고 했다"

25일 기독교단체 한국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원저우 시 상장교회 연사오지에 목사는 최근 중국 정부의 허난성 교회 탄압을 규탄하는 청원서에 서명한 340여명의 교회지도자 중 한 명이다.

동의 자유를 제한받았다.

중국 내 종교탄압은 올 초 더 강화됐다. 지난 2월 당원의 종교활동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신선했다. 지난달엔 베이징 최대 가정교회로 꼽히는 시온교회가 강제 폐쇄됐다.

현속 풀리 한국순교자의소리 대 표는 "엔 목사는 청원서에 서명하면 자유를 억압받고 목숨까지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간한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을 붙잡고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무슬림 습격, 눈앞서 가족 몰살”

나이지리아 여학생이 겪은 참상



되는 장면을 목격한 여학생 블레싱 코지(23)의 사연을 전했다.

악몽 같은 사건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일어났다. 나이지리아 중부 플래토 주 주도인 조스의 외곽지역 루쿠바 로드에서 사는 블레싱은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 방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평온했던 일상이 한 순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무슬림의 무차별 총격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눈앞에서 쓰러졌다.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데도 경찰이나 군인은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았다.

전 세계 박해 받는 크리스천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치모니터'는 지난 22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무슬림의 공격으로 온 가족이 피살

리면서 한 시간 이상 숨죽이며 괴한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

블레싱의 사촌 중 두 명이 살아있었는데 괴한들은 잔인했다. 이들은 세 곳에서 사촌 한 명에게 총질을 했다. 이 사촌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사촌 한 명은 강간당한 뒤 총에 맞아 숨졌다.

괴한들은 블레싱의 이웃도 공격했다. 그날 밤 블레싱 가족 열 명을 포함한 열다섯 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블레싱을 포함해 다섯 명이다. 블레싱은 "괴한들은 검은 옷을 입고 풀라니 말을 썼다. 일부는 군복에 영어를 사용했다"면서 "군복을 입은 괴한들은 집을 떠나면서 '일을 마쳤으니 돈 받아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늦도록 일 하느라 집에 없었던 아버지는 온 가족을 잃은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블레싱은 "아버지는 지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

유진 피터슨이 남긴 목회 유산 5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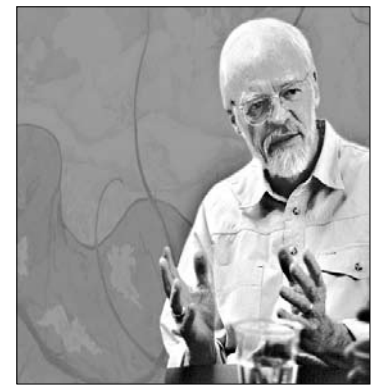
크리스챤티티튜데이, 학자·목회자 의견 수렴해 보도

'목회자들의 목회자'로 불렸던 고 유진 피터슨 목사(사진). 그는 목회자들을 돕고 격려하기 위해 평생을 살았다. 피터슨 목사에게 어떤 점을 배울 수 있을까. 미국 크리스챤티티튜데이는 피터슨 목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학자와 목회자들의 의견을 모아 '피터슨 목사에게 배우는 교훈'을 최근 보도했다.

첫째, 단어를 주의 깊게 선택하라.

유진은 시인처럼 언어를 주의 깊게 다뤘다. 그는 언어를 지혜롭게 선택해 왜곡하게 사용했다. 그는 말과 행동을 합치시키려 했고 이를 입증하려 했다. 유진은 목사들이 쉬는 월요일마다 시를 읽을 것을 권했다. 나는 조지 허버트, 루시 쇼, 크리스티나 루세티 등을 읽었고 이는 목회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다. 시인이자 농부인 웬들 베리는 부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공했다(딘 핀터 목사, 캐나다 성공회).

계했다.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인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흥미로운 분인지 보여줬다(트라이그베 존슨 목사, 호프칼리지).



넷째, 그리스도는 목회자가 전해야 할 모든 것이다.

유진은 수많은 강연에서 목회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그때마다 그는 그리스도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에게 플랜 B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것이며 신자들에게 전해야 할 모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낙담하지 말라"며 격려했다(키일 스트로벤 교수, 탈봇신학교 영성신학).

다섯째, 과장(grandiosity)을 거절하라.

목회자들은 목회 과정에서 교회

주의 깊은 단어 선택, 목회 소명의 회복 구체적 목회적용 도출, 전도 플랜B 없어 목회는 사람 이용하는 게 아닌 사람사랑

둘째, 목회 사역은 중대한 일이다.

유진은 목회자의 소명에 명예와 존엄이 있다는 것을 회복시켰다. 그는 목회자는 지적이며 요령이 있고 창조적이며 유쾌하고 예언자적인 사람이라는 면을 되살려냈다. 유진은 특히 실용주의적 목회에 경고를 울리면서 "유혹에 저항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한 길을 가는 오랜 순종의 증인으로 인내하며 십자가를 선 것 을 말했다. 나는 그의 조언을 통해 구원의 세계를 폭넓게 경험했다. 그는 상투적 표현을 남발하거나 상상력 없는, 판에 박힌 신학을 경

셋째, 목회는 추상적이지 않다.

피터슨 목사처럼 성경적 진리의 전통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목회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는 성경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구체적인 적용을 도출했다. 목사란 모든 교인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사람으로 간주했다. 그는 메릴랜드주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의 이름을 알기 어려워지자 목회에서 물러났다. 이름뿐인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한다(마셜 셸리, 덴버신학교 목회학박사 과정 책임자).

성장과 성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때마다 과정과 권위주의가 동원된다. 피터슨 목사는 이를 경계했다. 그는 목회자의 소명은 개인적 관계에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주지했다. 이는 교인들의 말을 듣는 것이며 설교는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이지 청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 목회는 사람을 사랑 하는 것이지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제스민 조진 목사, 미션힐교회).

(미션라이프)

고 있다"면서 "오로지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끔찍한 살육이 이어졌지만 나이지리아 공권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블레싱은 경찰이나 군인 누구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고 했다.

블레싱은 왜 자신들이 습격을 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 발생 이를 전 풀라니족 사람들이 아들을 찾는다며 마을을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풀라니족 사람들이 떠난 뒤 아들의 시신이 마을에서 발견됐다. 블레싱은 "누구도 그 풀라니족 아들의 시신이 왜 우리 마을에서 발견됐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풀라니족 사람들은 아들의 사망을 관계 기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고 한다"고 덧붙였다.

나이지리아에서는 기독교인과 무슬림간 유혈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북부 카두나 주에서 기독교인과 무슬림간 다툼이 유혈 충돌로 이어져 55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8면에서 계속)

영적리더가 변하지 않고는 천국의 삶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세 번째 리더십의 원리: 준비하는 가솔리더가 되라. 가을에 추수하는 것은 겨울을 준

비하기 위함이다. 겨울을 준비하며 풍성한 소출을 주는 가을 산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준비하는 신앙을 가르친다. 우리는 어떻게 내 인생의 겨울, 내 신앙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가을에 식물들이 겨울맞이를 준비하듯 우리 영적리더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

가을을 사는 가솔리더는 지혜가 있다. 날씨가 구별할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가을이 주는 영적 교훈을 잊지 않는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sondongwon@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with photos of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hurches across the US and Canada.

Food in Bible(10)

육류 및 가금류(Meats & Poultry) (상)



최성은 (Ph.D., RD, 퀸즈칼리지 교수)

터키(Turkey)를 많이 찾는 핑스기빙(Thanksgiving)의 계절이 다가온다. 인류 역사에서도 보면 고기는 항상 축제, 만찬, 연회의 중요한 상징이 되어왔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육류를 먹는 것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육식을 보는 관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직후 인간에게는 식물(plant) 중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주시는 반면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이로 주고 계시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셋째 날 창조된 식물(plant)을 자신의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으로 주신 것이다("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1:29, 30).

다(마14:17-21).

베드로는 또한 시장하여 먹고자 할 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을 환상 중에 보며 주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두 번째 소리가 들리게 된다. 이 짐승들이 꼭 음식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을 상징한다 할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이 계시의 말씀을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행10:10-15).

이러한 구절에 근거하여 볼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꼭 먹어야 한다든지 하는 규율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관건에 관한 우리의 확신을 강요하거나 그들이 먹거나 먹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노아홍수 이후 육류 먹어... 예수님도 채식주의자가 아니심 타인에게 자기의 확신을 강요하거나 판단하지 말 것 의미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고(창9:2-3) 그 이후 하나님은 이 허락을 취소하신 적이 없으신 것으로 보인다("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9:2-3).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생각난다고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내리심으로 고기를 제공하셨고(출16:12-13; 민11:4-6)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번제(burnt offering), 소제(grain offering), 화목제(fellowship offering), 속죄제(sin offering), 속건제(guilt offering) 중 곡식을 드리는 소제만 제외하고 모든 다른 제사에 소, 송아지, 양, 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등 동물들이 제물로 올려지고 그 제물을 먹었던 것을 볼 수 있다(레1-7장).

그럼 예수님은 고기를 드셨을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고기(눅22:8-15), 생선(눅24:41-43)을 드신 것으로 보아 채식주의자, 적어도 vegan은 아니셨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수님은 또한 기적을 베푸셔서 곤충들에게 물고기와 빵을 주셨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이 동물성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vegan)였다면 이상한 사건일 것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염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말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다니엘이 왕궁에서 진수성찬 가운데 채식만으로 건강하고 준수한 용모를 유지한 것은(단1:11-16) 채식의 우월함을 보인다고보다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의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영양학적으로 육식과 채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최근 고기 과다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와 동물성 식품 생산 체계의 조직적 문제, 예를 들어 환경 문제, 호르몬, 항생제의 남용 등의 문제로 채식주의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이는 육식의 섭취량과 윤리적 관리가 필요한 것이 육식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구약 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레11:1-47), 고기를 먹지 말라는 명령은 결코 없었다.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막7:19).

cse1001@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도의 표적(고후12:11-13)찬403장

사도는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의식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줍니다. 첫째, 그의 견인이 증거입니다.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견디는 것 곧, 그의 아가페 사랑이 보여진 것은 그가 받은 사도의 직분 때문입니다. 그는 받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표적과 기사가 그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증거를 위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도가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성령의 증거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었습니다. 셋째, 능력 행함이 그 증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체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표적은 교회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도인 성령을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로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사도가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사도와 성령의 증거를 동일선상에 둘 수 있었습니다. 셋째, 능력 행함이 그 증거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일체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이 표적은 교회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도인 성령을 순종함으로 복음 증거로 그 표적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화 영혼을 사랑하는 사도(고후12:14-15)찬340장

사도에 대한 오해가 복음증거의 광채를 가리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재물의 유혹을 극복한 마음입니다(14). 사도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누리게 하려고 자신의 열심의 동기가 인간적 욕심이 아니고 오직 아이에 대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의 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15). 그는 육체의 유익에 초점을 두

지 않고 오직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영혼의 잡됨을 위하여 온갖 재물을 허비할 자세를 가졌습니다. 셋째, 자신을 주는 사랑을 보였습니다(15). 마침내 사도는 해산의 고통을 가진 여인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빚어지기 까지 그들을 품었습니다. 진정 우리 시대는 사도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수고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일꾼이 필요합니다.

수 신덕사 바울(고후12:16-21)찬355장

사도는 마귀 소굴 같은 현장에서 주를 섬겼습니다. 마귀가 온갖 수법으로 공격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사도의 직분을 잘 수행했습니다. 첫째, 속임수로 이득을 취하는 자란 오해를 받았습니까(16). 맹렬한 비난과 권모와 술수가 몰려오는 곳에서도 그의 목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여 그 난관을 이겼습니다. 둘째,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일에 초점을 맞췄습니까(17-18). 디도에 대한 추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됨을 인정했습니다. 시작도 과정과 결과도 모두 성령이 앞서고 우리는 그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셋째, 그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19). 말이나 관계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특권과 권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선택사가 됩니다.

다(17-18). 디도에 대한 추천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진행됨을 인정했습니다. 시작도 과정과 결과도 모두 성령이 앞서고 우리는 그의 뒤를 쫓아야 합니다. 셋째, 그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19). 말이나 관계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많은 특권과 권리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견디며 나아갔습니다. 사역하기 전에 먼저 선택사가 됩니다.

목 바울의 두려움(고후12:20-21)찬257장

겸손한 목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교회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적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첫째, 서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형상을 보이지 못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20).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교회는 영력을 잃었기에 교회로서 구실할 수 없고 도리어 마귀의 활동하는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둘

째, 교회의 혼란(21)을 두려워했습니다. 복음을 떠난 교회는 곧 마귀가 활동하기 때문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떨어집니다. 특히 말세에는 마귀의 주무기인 진리를 떠나게 함으로 극도의 혼란을 조성하고 영적권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낮춤을 두려워했습니다(21). 절대권위를 가진 사도라 할 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시는 주권의 손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금 약할 때 나타나는 능력(고후13:1-4)찬388장

주님의 임하심은 세상의 방법과 달리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원리를 따릅니다. 사도는 이것을 약할 때 강해짐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첫째, 권징의 효능(1-2). 사도가 세 번째 갈 때는 진리와 사랑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 권징할 것을 알렸습니다. 권징은 벌주는 목적이 아니라 진리 안에 서서 은혜생활을 함께 있었습니까.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과 같

습니다. 둘째, 십자가의 능력의 본(3-4). 사도가 받은 계시에 대한 의심으로 교회를 혼란케 함에 관해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배워 보십시오 그 위에 바로 서게 합니다. 약해 보이는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입니다. 셋째, 약하나 강해지는 능력(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약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면 그리스도의 강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성실하게 집시다.

토 믿음을 확증하라(고후13:5-7)찬343장

사도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속에 교회가 할 일은 믿음을 확증하라고 가르칩니다. 나 자신부터 그 확증을 가질 때 고난 속에서도 창조적인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해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살아계심을 확증해야 합니다(요15:5). 이것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악을 미

워하는 자임을 확증하라(6). 또 사도는 교회가 고난 속에서도 죄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열정으로 교회를 채워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을 성결을 추구하는 열심에서 나옵니다. 셋째, 오직 선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7). 참 믿음을 참 선행을 가져옵니다. 사도의 확증을 가집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의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Kumran, Roman Catholic, etc.

지구촌 정서지수, “잔뜩 흐림”

뉴스위크, “지구촌,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슬픔, 고통에 시달린다” 설문 설문 보도

우울하고 괴로운가?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 세계적인 여론 조사기관 갤럽의 최근 보고서에서 글로벌 불행 수준이 아주 높게 나타났다. 10여년 전 갤럽이 전 세계인의 정서 상태를 처음 조사한 이래 최악을 기록했다(GLOBAL MISERY WORST SINCE RECORDS BEGAN, POLL FINDS).

얼마 전 발표된 갤럽의 연례 ‘글로벌 정서 보고서(Global Emotions Report)’는 145개국 이상에서 15만4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2017년이 이전의 어느 해보다 더 불행한 시기였다고 결론지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슬픔과 스트레스, 걱정과 분노, 신체적 고통을 어느 때보다 더 자주, 더 많이 느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005년 갤럽이 글로벌 정서 조사를 시작한 이래 세계인의 정서가 지금 가장 부정적이라는 뜻이다. 이번 조사 이전까진 2015년과 2016년이 똑같은 수준으로 가장 불행한 해로 기록됐다. 하지만 지난해에 발생했거나 악화된 전쟁과 정치적 분열, 인도주의 위기로 지구촌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서가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었다(이전엔 이라크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불행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온 나라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선 내전과 폭력 사태로 60만 명이 넘는 난민수용소로 피신했다.

바로 전 날 미소를 지었거나 웃었는지, 기쁨을 느꼈는지, 관심 있고 흥미로운 일을 했는지, 잘 쉬고 존중 받았는지를 평가하는 지수다. 콜롬비아·엘살바도르·과테말라·캐나다가 파라과이의 뒤를 이었다. 유럽에선 아이슬란드만이 가장 행복한 국가 톱12에 들었다. 아시아에선 인도네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이

2017년: 40%-스트레스나 걱정, 20%-분노
24%-슬픔, 31%-신체적 고통 경험

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거의 40%는 스트레스나 걱정에서 시달렸다고 밝혔다. 또 20%는 분노, 24%는 슬픔, 31%는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2017년의 부정적인 경험 지수(불행 점수)는 30점을 기록했다. 2015년과 2016년은 28점이었다.

갤럽의 모하메드 유니스 편집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와 걱정, 슬픔, 고통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한 나라의 긍정적 경험 지수가 더 높으면 부정적 경험 지수가 더 높을지, 또 특정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 측면에서 어느 나라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의 지도자는 국민의 ‘정서적 온도’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세계에서 부정적인

에선 근년 들어 내전과 폭력 사태로 60만 명이 넘는 집을 떠나 임시 난민촌으로 피신했다.

갤럽에 따르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도를 넘는 폭력 사태로 일부 지역에선 설문조사가 아예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61점이라는 최악의 불행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 특히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남수단·차드·시에라리온·이집트였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 일반적으로 불행 점수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로 행복의 혜택을 톡톡히 누린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난해도 행복 점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파라과이가 긍정적 경험 지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설문조사에 응하기

그 대열에 들었다.

유니스 부장은 이 조사가 인간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점수는 장기적인 맥락에서 고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조사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관한 추적이 단일 연도에 한 나라의 전반적인 점수보다 더 중요하다. 국가적인,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를 뒤덮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희망이나 절망의 추세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2)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투자과 성경적 원리(1)

투자에 대한 성경적 원리의 적용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단지 맹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만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산의 축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중에 그 부산물로서 형성되어야 한다. 평안은 물질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평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좌절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된 평안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요4:27).

이와 더불어 어떤 투자를 하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정치가, 즉 문자 그대로 타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라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

바로 투자의 참 목적인 바, 하나님을 보다 충성되게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을 늘려 나가야 한다.

B.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라

어느 누구도 돈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없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의 목적이 교육비 마련이 될 수 있고, 정년퇴직 후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투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정년퇴직 후를 위한 투자는 과도하지만 않다면 정년 후의 계획 수립은 결코 그릇된 것이 아니다. 장년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은 각자의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된다.

비축을 위한 투자로 교육비, 정년 퇴직 후의 자금, 또는 기부금 등 장래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금 당장은 자금이 거의 필요하지 않지만 장래 큰 액수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재산 증식 전략을 채택하게 된다. 세금 혜택 목적은 감가상각과 투자 세액 공제는 합법적인 세금 혜택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감가상각을 이용하여 소득세를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대부분의 세금혜택 수단이 진정한 의미에서 소득세를 감면시켜 주지는 못한다. 단지 그 납부시기를 늦추어 주는 결과만 가져다 줄 뿐이다.

C. 개인적 채무를 피하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빚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는 곧 어떠한 형태로든 개인적인 빚을 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모든 투자는 명확한 목적 있어야... 위험 감수하며 투자할 필요 없어 재산축적은 하나님 뜻 따르는 부산물... 어떤 형태든 개인적 빚 안돼

도 갖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라고 하였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다.

A.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라

관리가 허술하여 재산을 좀먹게 한다면 정치가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가 나태하고 게으른 정치가의 표본이다. 반면에 맹목적으로 재산을 늘리고 축적하는 것도 누가복음 12장 16-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와 같이 결국에는 재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고 만다.

투자라는 것이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5장 14-30절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히 관리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가 직분을 어떻게 수행했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상벌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투자하는 방법을 배울수록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기 기회가 더욱 많아진다. 이것이

그 돈을 비축해 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목적은 현재의 소득 중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도 해당한다.

대부분의 고소득자가 비축하는 금액 중 대부분은 그들의 직업을 통해 벌어들인 것인 반면에 이들이 돈을 잃는 경우는 그 대부분이 투기성 투자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고소득자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의 가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증식시키면서 소유 자산을 비축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즉 이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다.

교육을 위한 투자는 자녀교육을 염두 해 두고 있는 중산층 가족이라면 재산의 증식보다는 투자할 수 있는 규모와 자금의 소요시기에 따라 투자 방법이 달라진다. 소득을 목적으로 한 투자는 최대한의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부부에게 해당되는 목적이다. 이들은 일정한 소득이 필요하며 동시에 기존 자산의 보존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일단 필요로 하는 소득 수준이 충족되면 잔여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상쇄해 주는 투자에 배분하게 될 것이다.

재산 증식 목적을 위한 투자는 지

들면 어떤 투자자가 1만 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2천 달러 밖에 없다고 가정하자. 따라서 이 사람은 2천 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 8천 달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이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는 관대했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게 되고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아무런 채무 이행 대책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를 지는 것이다. 반면에 다른 동일 물건을 1만 달러에 매입하면서 2천 달러를 지급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가정하자.

“이 어음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자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게 되며 발행자는 이미 지급한 2천 달러에 대한 청구권을 상실하게 될 뿐 추가적으로 다른 어떠한 채무도 지지 않는다.”

이 경우 차용자가 지불해야 할 내용이 “소유권의 포기”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적인 건전한 차용 방법이다.

탈북민 목회자 (북기총 임원진) 남가주 목회 연수단 일정공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3만2천명의 탈북자 사회와 탈북민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탈북출신 목회자 8분 (북기총 전, 현직 회장 포함)이 다음과 같이 남가주와 북가주 일대의 한인교회들을 순회하며 미래 북한교회 재건과 북한교회 목회전략을 이민목회자 리더들과 함께 나누고,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기도와 축복을 보내주시십시오!!

2018년

- 10월 30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도착
- 10월 30일(화) 미주평안교회 (임승진목사) 성시화본부 주관 환영만찬 및 기자회견: 장소 - 미주평안교회 (임승진목사)
만찬및 특강: "북한교회 재건및 목회전략" (탈북목회자 중 3인) 간담회: "탈북민교회 목회와 미주 이민목회의 이민목회 공동성"
- 10월 31일(수)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목사) 특강: 이민목회의 특성 (최홍주목사)
동신교회 (백정우목사) 특강: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백정우목사)
참관: 동신교회 주일학교 (할렐루야 나이트)
- 11월 1일(목) 베델교회 (김한요목사) 특강: 이민목회 발자취 (송정명목사)
특강: 디아스포라들의 의미와 역할 (김인식목사)
환영만찬 (연규호장로목 베다니홀) OC지역 목회자 / 평신도지도자 메세지: 송정명목사 (성시화운동 본부장)
- 11월 2일(금) 오전 산호세 국제공항 도착
- 11월 2일(금) 산호세지역 목사회 초청 환영만찬회 (주관: 위성교목사)
장소: 임마누엘장로교회 (손인식목사)
특강: 북한교회 재건및 목회전략/ 탈북민목회와 이민목회
- 11월 3일(토) 새벽예배: 뉴비전교회 (이진수목사) / 새누리교회 (손경일목사)
산호세 지역과 금문교 일대 휴식과 관광
- 11월 4일(주일) 주일예배 설교 사역
마요한목사: 산호세 은누리교회 (김영련 목사) - 사62:1-7 '하나님의 통일'
송신복목사: 조이플교회 (이상준 목사) - 출32:32, 롬9:3 '동족을 위한 목숨거는 기도와 헌신'
김진 목사: 상향 중앙장로교회 (권혁천 목사) - 눅 5:1-11 '어부의 새 출발'
김권능 목사: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 (이강웅 목사) - 시102:17-22 '갈렐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김이진 전도사: 임마누엘 장로교회 (손원배 목사) - 민 14:20 '설득하라'
송혜연 목사: 뉴라이프 교회 (위성교 목사) - 엡2:14 '막힌담을 허신 하나님'
강철호 목사: - 시126:1-6 '이민족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소서'
- 11월 5일(월) 오후 산타아나 공항 도착
- 11월 5일(월) 미주복음방송 특별 방송간담회 - "북한 인권상황과 복음전파 전략" (탈북민 목회 연수단 전원)
"평양, 신의주, 원산, 청진, 해주, 사리원...등의 교회 재건을 꿈꾸며!!..."
--- Open brain-storming session
장소: UTD 사무실 (7:00pm)
참석: 복음통일을 꿈꾸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께 open!!
- 11월 6일(화) 특강: "교회성장과 성령의 멘토링" (손인식목사)
- 11월 7일(수) 친지방문, 개인별 자유시간, 식사초대 참석 등
만찬및 간담회: 남가주 사랑의 교회 북한선교팀
- 11월 8일(목)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출발



마요한 목사, 강철호 목사, 김진 목사, 김권능 목사, 송신복 목사, 송혜연 목사

주관: 그날까지 선교연합 (UTD-KCC Missions) 국제대표: 손인식 목사 공동대표: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김영길 목사 김인식 목사 한태일 목사